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6

통일애국에 바쳐진 삶은 세월이 흘러도 민족과 더불어 겨레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법이다.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6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차례

김구편

《나라의 치욕을 씻으리라》 ······ 6
상해에서 중경까지 ······ 12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까지 ······ 21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 33
민족사의 한 페지에 오르다 ······ 47

려운형편

독립의 길을 찾아 수만리 ······ 60
백두산을 우러르며 ······ 68
해방정국의 와중에서 ······ 78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85
숭고한 의리속에 영생하는 삶 ······ 94

허헌편

불의에 맞선 량심적인 변호사 ······ 104
평양에 찾아온 사연 ······ 120
절세의 위인의 품에 안겨 ······ 133
마지막당부 ······ 143

최일천편

오가자의 《농우》 주필 …… 158

《동아일보》 장춘지국의 《요시찰인》 …… 168

남녘땅을 뒤흔든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 174

오늘도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 187

안신호편

그리스도교신자가 녀맹일군으로 …… 196

통일정부수립에 이바지하던 나날에 …… 207

영생의 언덕에 올라 …… 215

김 구편

《나라의 치욕을 씻으리라》 ······························ 6
상해에서 중경까지 ·· 12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까지 ······························ 21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 33
민족사의 한 페지에 오르다 ······························· 47

경력

- 1876년 7월 11일 황해도 해주교외 운방터골에서 출생.
- 1894년 갑오농민전쟁시기 해주에서 농민봉기군에 참가.
- 1896년 치하포에서 왜놈장교를 처단.
- 1910년 반일비밀결사 신민회 가담.
- 1911년 105인사건 혐의자로 체포.
- 1914년 황해도일대에서 농민계몽운동.
- 1919년 상해망명, 상해림정의 경무국장, 내무총장.
- 1928년 한국독립당 조직.
- 1932년 한인애국단 조직.
- 1946년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의장.
-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 참가.
- 1949년 6월 26일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해 피살.
- 1990년 조국통일상 수상.

백범 김구, 파란많던 조선의 근현대사에 큰 자욱을 새긴 풍운의 사나이, 아마도 조선사람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날에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통일애국인사들이 적지 않은데 김구도 바로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해방후 통일이란 네가 이기고 내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던 량심이 하나가 되는것이라고, 분단문제를 권력유지에 리용하는 놈들은 민족반역자, 인류반역자라고 하면서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미국과 리승만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백범 김구.

후세는 매 사람에게 그에 알맞는 경의를 표시해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격동적이면서도 파란많던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어떻게 되여 세상을 떠난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남녘겨레뿐아니라 우리 공화국인민들의 기억속에도 살아있는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나라의 치욕을 씻으리라》

《운양》호사건을 조작한 횡포무도한 일제의 강요에 굴복하여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체결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이라는 섬나라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1876년 7월 중순 황해도 해주근방의 운방터골에서 어린 생명이 고고성을 울리며 태여났다. 인간이 태여날 때 울음을 터뜨리는것은 앞날의 고행에 대한 예고라는 말을 립증이나 하듯 새 생명의 출생은 류례없는 난산이였다.

진통이 있은지 한주일가까이 되도록 아이는 태여나지 않았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졌다. 그러자 친척들은 산모에게 소길마를 머리에 쓰고 지붕꼭대기에 올라가 소울음소리를 내라고 했다. 그런 뒤에야 아기가 태여났다.

몸집도 작은데다가 어린 나이에 고된 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시집을 가서 겨우 본 아들이였는데 젖마저 부족하여 그의 어머니는 암죽을 끓여먹이면서 차라리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군 했다고 한다. 그 아이가 바로 김구였다. 어릴 때 이름은 김창암.

석전경우로 집약되는 황해도사람의 기질을 체현한듯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고 인내성이 강했다고 한다.

김구는 정식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당에서 공부한것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향학열이 매우 높았다.

김구는 이악하게 공부하여 17살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 돈이 없어 좁쌀을 지고 해주에 가서 과거시험을 쳤는데 돈에 의해 과거급제와 탈락이 결정되는 당시 사회환경에 환멸을 느끼고 붓을 꺾어버렸다고 한다.

19세기말에 이르러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략탈하는 부패한 봉건통치배들과 우리 나라를 지배하려는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반봉건반침략적성격을 띤 우리 인민들의 투쟁이 전국각지에서 세차게 일어났는데 전라도 고부농민들이 일으킨 폭동이 대표적이였다.

당시 갓 천도교인이 된 김구는 갑오농민전쟁에 몸을 잠그게 되였다. 농민군에는 천도교도들뿐아니라 봉건적폐단으로 생활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다.

선봉장 김구의 산포수부대는 해주성을 공격하는 농민군의 주력부대가 되였다. 그가 선봉장으로 된것은 나이는 어리지만 평소에 군사학에 대한 조예가 있었기때문이였고 그의 부대가 주력이 된것은 순전히 산포수들로 꾸려져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그는 말에 올라 선봉이라는 사령기를 잡고 해주성으로 전진하는 농민군의 선두에 섰다. 5시간의 대혈전을 벌렸으나 외

세의 간섭과 화력의 렬세로 무참하게 패하고말았다.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한 후 전전긍긍하던 김구는 어느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였다. 일본정부의 사촉을 받은 일본군대와 경찰대, 깡패들이 궁에 란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사태가 벌어졌던것이다.

명성황후살해사실이 알려지면서 왜놈들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끓어올랐고 곳곳에서 의병투쟁이 벌어졌다.

을미사변의 원쑤를 갚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김구는 어느날 안악에서 동북쪽으로 사십리쯤 떨어진 작은 포구인 치하포에서 조선사람으로 변장한 일본헌병 중위놈과 맞다들게 되였다.

분격을 참을수 없어 침략자 왜놈중위를 맨손으로 때려죽인 그는 놈이 가지고있던 천냥가량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한 후 부근의 한 집의 담벽에 국모를 시해한 원쑤를 갚기 위해 이 왜놈을 죽였다는 글을 적고는 피신하라는 친구의 권유도 마다하고 집으로 향하였다.

치하포사건은 을미사변에 따른 순간적의분으로 벌어진 돌발적인 행동이였지만 김구에게는 일생을 반일에 바치게 한 상징적사건이였다.

그는 해주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그의 첫 감옥생활이였다. 김구는 몇달후 인천감옥으로 이감됐다. 갑오개혁이후 외국인관련사건을 다루는 특별재판소가 인천에 생겼기때문이였다.

법정에서 왜놈중위를 살해한것을 당당히 시인한 김구는 옆 의자에 앉아 심문과정을 지켜보던 일본경찰에게 이렇게 웨쳤다.

《이 개같은 왜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했느냐.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여, 또 살면 온몸으로 네 임금을 죽이고 왜놈을 씨도 안 남기고 모조리 죽여버려 우리 나라의 치욕을 씻으리라.》

와다나베라는 일본경찰은 김구의 서슬푸른 기상에 질겁하여 그 자리에서 황황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날부터 김구는 수인들속에서 우두머리가 되였다. 《중전마마의 복수를 위해 왜놈을 때려죽인 의로운 인간》인 김구를 보려고 면회를 청하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늘었다.

1896년 11월말 중죄인 5명과 함께 김구를 교수형에 처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종황제가 사형을 중지하라는 어명을 내리였던것이다.

김구는 기약없는 옥중생활을 하면서도 문맹의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무료로 맡아주었다.

한편 왜놈들은 김구를 기어이 죽이려고 봉건정부를 압박하며 발악하였다. 감옥에서 값없이 죽을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노리던 김구는 드디여 탈옥에 성공하였다.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것은 바로 탈옥후의 도피생활때였다.

1905년 11월 일제는 대포와 총칼로 황궁을 포위하고 고종황제를 협박하다 못해 매국노들을 앞세워 나라의 최고주권자인 황제의 승인, 수표, 국새날인도 없는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을사5조약》이 날조되자 김구는 진남포청년회 총무의 자격으로 서울에 올라와 조약파기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는데 그것은 그가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운동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였으며 이 과정에 이름난 인사들과 인연을 맺게 되였다.

《을사5조약》날조라는 치욕적인 위기상황속에서 학교설립운동은 일종의 애국운동으로 전개되였다.

안악으로 옮겨온 김구는 양산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황해도전체의 교육계인사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양산학교에서 야학부도 맡아서 가르쳤다. 야학부에는 나무군아이들이 다녔는데 김구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성심성의로 가르쳤다.

그후 황해도지역 교육총회의 학무총감이 된 김구는 황해도일대를 순회하면서 지방유지들을 만났고 환등기를 가지고 다니며 계몽강연도 하였다.

당시 학교설립운동에는 허울뿐인 봉건조정도 적극적이였다. 이러한 추세를 위험시한 통감부는 마침내 봉건조정으로 하여금 이른바 《사립학교령》을 제정하도록 강요하고 사립학교설

립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07년 서울에서 반일적인 비밀정치단체인 신민회가 결성되였는데 그에 관여했던 김구는 그만 일제의 마수에 걸려 체포되였다.

서대문감옥에서 일제교형리들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그의 애국심과 항일정신은 더욱 굳어졌다.

어느날 출옥할 가능성이 보이자 그는 자기의 이름을 구라고 짓고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자기가 이름을 고친것은 일본의 동화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였고 백정의 백과 범부의 범자를 따서 호를 백범이라고 한것은 가장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정도의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상해에서 중경까지

1919년 4월초 김구는 중국의 상해로 망명의 길에 올랐다. 상해에 도착한 김구는 상해림정에 발을 붙이게 되였다. 대부분이 현지에 있지도 않는 인물들로 조직된 림정은 간판은 내걸렸지만 정부청사라는데서는 몇사람이 낡아빠진 책상 하나씩 차지하고 방을 지키였으며 김구는 접수, 경비를 말아 처리하였다.

그는 몇달후에는 림정의 경찰수장격인 경무국장으로 취임하게 되였다. 1920년 1월에 일제경찰이 작성한 문건에는 림시정부 요인가운데서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섯사람을 꼽았는데 그중에 김구도 속해있었다. 그는 총장은 물론 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는 안창호와 리동휘 다음가는 실력자로 인식되여있었던것이다.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거국적인 정부》라고 자칭하던 상해림시정부내에서는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치렬한 감투싸움을 벌리였다. 림정의 수뇌자리가 빈번히 교체된것도 그때문이였다. 지어는 한해에 두번씩 내각개조놀음이 벌어진 때도 있었다.

림시정부의 요인들은 빠리강화회의때 조선독립청원서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대표들의 방해책동으로 회의의정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비굴하기 짝이 없는 청원놀음을 계속하였다.

심지어 미국회 의원 동양시찰단이라는것이 상해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는 국내에 있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을 부추겨 미국회 의원들에게 인삼과 은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값비싼 물건들을 섬겨바치게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 림시정부조차도 1920년대 중엽에 와서는 자금난으로 그 허울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장개석의 국민당정부에 얹혀다니면서 구차스럽게 지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 때에 림정의 국무위원이 된 김구는 림정을 종전의 무맥하고 맹목적인 존재로부터 반일투쟁의 자세로 개편한다고 선포했다.

림정의 이름으로 일제의 고위인물들에 대한 암살을 단행하면 그 존재가 내외에 알려지는 동시에 림정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도 많아지겠으니 그이상 좋은 일이 또 어데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어깨를 늘어뜨렸던 림정의 법통고수파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어 상해에서 김구를 단장으로 하는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였고 그 서막이 연출되였다.

1932년 1월초 애국청년 리봉창이 폭탄을 차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폭탄 두개는 김구가 중국군장교와 군인을 통해서 구입한것이였다.

도꾜궁성의 앵전문밖에까지 접근한 리봉창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벌리는 륙군관병식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왜왕의 쌍두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폭탄은 왜왕을 때리지 못했다. 리봉창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여 도꾜의 지하감방에 갇혔다가 그해 10월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리봉창의 희생적인 의거는 조선과 일본은 물론 중국대륙에도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제침략군 상해파견군 사령관 등을 폭살시킨 홍구공원사건은 다시금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홍구공원사건이 있은 후 중국사회계의 명사들이 련이어 이 사건의 조직자이며 배후조종자인 김구에게 위로면회를 청해오거나 위로금을 보내왔다.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이 민족적영웅으로 찬양되고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국내는 물론 미국, 연해주, 만주 등지에 널려있던 온 교포사회가 법석 끓고있던 시대적분위기를 타고 김구의 테로주의는 적개심에 불타는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현혹시키였다.

그러나 한두번의 테로는 일제와 대결하려는 조선민족의 반일독립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중국의 광범한 계층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단편적인 사변으로 될뿐 일제에게 결정적타격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큰 탄압과 보복의 구실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일제는 림정계요인들에 대한 수색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김구에게는 6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그를 체포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켰다. 당시 로동자의 하루임금이 1원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아닐수 없었다.

김구를 비롯한 림정세력은 하는수없이 중국의 여기저기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림정은 거처지를 빈번하게 옮기였다. 국민당정부를 따라 소재지를 자꾸 바꾸다보니 간판이나 겨우 유지할 정도로 고달픈 처지에 있었다. 어떤 때에는 짐보따리를 풀어보지도 못한채 려관구석에 앉아있다가 전쟁의 참화를 피해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끊임없는 파쟁과 개각으로 진통을 겪는 림시정부는 초보적인 생존조건과 신변의 위험때문에도 고충을 겪었다.

오죽했으면 후날 김구가 경제적곤난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군월급이 20원미만이였으나 이것도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번 송사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는 림정청사마루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거지중에서도 상거지였다고 하였겠는가.

류랑과정에 김구는 괴한의 총격을 받아 죽음직전에 다달은적도 있었다.

장사에서 한동안 지내면서 4당 대표들이 모여앉아 통합문제를 놓고 토의를 하였다. 그때 종파분자들의 충동을 받은 한 청년이 회의장에 뛰여들어 권총을 란사하는통에 소동이 일어 회의는 류산되고말았는데 이때 김구는 치명상을 입었다.

의사는 진단후 가망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했다가 세시간이 지나도록 숨을 거두지 않자 그제서야 치료를 시작했다. 김구는 1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회복되였으나 가슴에 받은 탄알자리로 인한 신경증으로 손을 떨게 되였으며 그때부터 붓글씨를 쓰면 획선이 꼬불꼬불 파상선으로 되였다고 한다.

이처럼 파쟁분자들로부터 테로를 당한 때로부터 그의 반공사상이 더 굳어졌다고 할수 있다.

당시 김구를 비롯한 우익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격렬한 반공의식은 진짜공산주의와 가짜공산주의를 식별하지 못한데 기인한것이였다.

당시 김구는 《조선에 쏘베트정부를 수립하여 쏘련의 가맹공화국으로 되여야 한다.》는 망발까지 줴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망동을 부린 가짜공산주의자들의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반공을 자신의 리념처럼 받아들였고 민족주의세력을 덮

어놓고 배척모해하는 《공산당》을 모조리 잡아죽이겠다고 벼르면서 극단적인 보복행동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김구는 반공두목이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게 되였던것이다.

파쟁과 남의 집 곁방살이로 시달리며 방황하던 김구를 비롯한 림정의 민족주의인사들에게 재생의 빛발이 비쳐들었다.

1937년 6월 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일제의 삼엄한 경계선을 뚫고 조국으로 진군하시여 보천보를 들이친 소식은 국내외에 폭풍같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중국신문들을 통해 보천보전투소식에 접한 림정계민족주의인사들은 얼마후 국내의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입수하여 보천보전투의 상세한 소식을 알고 통쾌감과 민족적자부심으로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구는 이미전부터 무력항쟁에 관심을 가지고있었는데 그가 1920년대초에 조직한 로병회라는 단체도 규모는 보잘것없지만 실은 무력항쟁을 지향한 단체였다고 한다. 그는 무저항주의적인 실력배양이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그의 한은 군대를 큼직하게 꾸려가지고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벌리지 못하는것이였다고 한다. 그러다나니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있었는데 보천보전투소식을 전해듣자 몹시 흥분되였던것

이다.

김구에게 있어서 보천보충격은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심을 간직하게 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안우생의 말에 의하면 김구도 보천보전투에서 이만저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안우생은 오래동안 상해림시정부를 따라다니면서 김구의 서기로 있었다.

어느날 김구는 신문을 뒤적이다가 보천보전투소식을 읽게 되였는데 어찌나 흥분했던지 창문을 열어제끼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번이나 고함을 질렀다는것이다.

김구는 그때 안우생에게 지금은 시국이 험한 때이다, 중일전쟁이 림박하니 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은 뒤골목으로 다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판국에 김일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에까지 쳐들어가서 왜놈들을 정면으로 후려친것은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이제는 우리 림시정부가 김일성장군을 후원해야겠다, 수일내에 백두산쪽으로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김구 한사람만이 아닌 림정계요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이미 안창호와 길림행을 같이했던 림정인사들로부터 **김일성**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에 대해 전해들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보천보전투승리소식이야말로 조선민족이 낳은 전설적

위인에 대한 실증이고 력사적확인이였던것이다.

그 당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지지와 동경을 표시하면서 련계를 절절히 바란것은 림정뿐이 아니였다.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을 비롯한 중국관내의 반일단체들과 조선인운동자들은 물론 려운형의 조선건국동맹을 비롯한 국내의 애국인사들도 조국해방의 기본력량인 **김일성**장군님부대와 련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미 1940년대초에 **김일성**장군님부대와의 련계를 위해 밀사를 파견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김구는 1944년 12월 중순 림정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림정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림정의 차후행동방향을 통보하기 위해 **김일성**장군님께 다시 밀사를 파견하려는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였다.

김구는 조선독립운동의 주류세력을 이루고있으며 2천만겨레의 일치한 흠모를 받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과 한번의 편지거래도 없이 《3.1의 피의 결실》이니, 《법통정부》니 하는 공념불만 외우고있으니 이 얼마나 계면쩍은 일인가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님께 가까운 시일안으로 첫 편지를 드리는 련락원을 파견하자고 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찬동속에 김구는 조소앙, 엄항섭, 최동오 세사람을 편지초안작성위원으로 정하였다.

편지에서 그들은 조종의 산 백두산에 사령부를 두고계시

는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만주광야와 백두산일대 북부조선의 넓은 지역에서 백만관동군과 일만군경을 상대로 혈투를 벌리시며 올린 그 혁혁한 전과에 고무되여 조국해방의 희망을 잃지 않고 림시정부법통을 고수해왔다고, 한데 겨우 몇십명밖에 안되는 망명집단으로서의 우리 중경림시정부는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에 림할 힘도 위신도 없다는것을 자인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김일성**장군의 조국해방운동대렬에 합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였다고, 우리의 밀사를 보내오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접견하시고 림정에 대한 련계와 합작의 방도를 명시한 회신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편지는 안우생이 명주천에 붓글씨로 두통 써서 림시정부의 주석인 김구의 도장을 찍은 다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리충모의 웃옷과 바지에 각각 한통씩 넣고 바느질로 꿰매였다고 한다.

밀사의 출발준비와 출발시일은 김구외 몇사람만 아는 극비에 붙였다. 밀사는 1945년 새해 첫새벽에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밀사를 백두산에로 떠나보낸 김구를 비롯한 림정계인사들은 미구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민족독립세력의 일익으로 조국해방의 결전에 참여할수 있으리라는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해방년을 맞이하였다.

그때로부터 몇해후에 이루어진 김구뿐만이 아니라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오하영, 최동오를 비롯한 림정계민족주의자들의 련공에로의 인생전환이 이때에 벌써 그 기초가 닦아졌다고 보는것이 력사의 순리일것이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까지

1945년 8월 15일 정오, 왜왕 히로히또는 일본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면서 무조건항복한다는것을 라지오중대방송으로 내불었다. 그처럼 기승을 부리던 강도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되였다.

다른 나라 경내에서 조국해방소식에 접한 림정은 입국문제를 두고 신중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림정에 새로운 장애가 나섰다. 미군이 남조선에 들어와 군정의 실시를 포고하였던것이다. 이에 따라 림정인사들의 귀국문제는 미군정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림정은 미군정에 림시정부의 권위를 인정할것을 요구하면서 입국후에 국내치안유지를 림시정부에 맡기며 미군정은 정치활동에 간섭하지 말데 대한 4대조건을 들이대였다.

8.15직후의 남조선형세를 가늠해보던 미국은 림시정부를 정

부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4대조건을 거부하였으며 김구가 림정의 집단귀국을 미군정당국에 간청해나섰지만 이것도 승인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손때묻혀 키운 리승만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림정을 인정하여 귀국시키는 경우 리승만을 내세우려는 저들의 기도가 합법적인 도전에 직면할수도 있다고 미국은 타산했던것이다.

미국은 림시정부의 요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며 귀국한 이후에도 하나의 정부로서의 특권 같은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할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미군사령부의 요구를 놓고 론난이 벌어졌으며 결과 3주일이나 출발이 지연되였다. 김구는 어쩔수없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되여 림정의 공식적이며 집단적인 귀국은 파탄되였고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림정의 요인들만 중국항공기편으로 중경을 떠나 상해로 나온 다음 상해에서 개인자격으로 11월 23일과 12월 1일 2개 조로 나뉘여 미군수송기편으로 귀국의 길에 올랐다.

림정관계자들은 이렇게 귀국은 하였으나 한많고 설음에 찼던 이국의 망명살이에서 풀려났다는 안도의 숨을 내쉴새없이 남조선사회의 파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다.

림정인사들의 귀국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김

구의 숙소인 경교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날 기자들의 첫 질문은 38°선문제였다. 김구의 대답은 신중했으나 한편 너무나 순진한것이였다.

《나는 조선이 남북의 두 점령지대로 분렬되여있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이 구분은 철페되리라고 믿는다. 미국과 쏘련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옳은 일을 하여줄것이다.》

김구는 해방이 됐으나 인민들의 생활은 더 피페해지고 모리배와 탐관오리들이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개탄했다. 왜놈통치시대에 순사질을 하던자가 경찰서장을 하는 등 친일파들이 오히려 활개를 치는 현실에 크게 실망을 했다. 그가 독립투쟁을 하면서 그렸던 조국의 모습이 아니였던것이다.

해방된 해의 12월말에 남조선땅에는 반탁이라는 랭혹한 회오리가 들이닥쳤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쏘, 미, 영 3국외상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면서 조선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회의에서 미국측은 조선에서 쏘미 량군이 군정을 실시하며 그것이 끝난 다음 10년동안 쏘, 미, 영, 중 4개국이 《신탁통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들고나왔다. 원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미국이 대조선정책으로 제기한것이며 미

국은 그것을 테헤란회담과 얄따회담에서 거듭 주장하여왔다.

그들은 조선사람은 《자치》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군정통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쏘, 미, 영, 중 4개국의 대표들로 조선의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 무슨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측의 이 제안은 사실상 해방된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자는것이나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쏘련측의 정당한 주장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협의하에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하며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적,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쏘, 미, 영, 중 4개국이 5년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후견을 실시한다는 결정이 채택되게 되였다.

그런데 문제는 남조선에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 결정한 우리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협의하에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미국이 류포시킨 《신탁통치》라는 용어와 《5년》이라는 기한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는데 있었다.

미국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저들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3상회의결정을 쏘련이 내놓은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위한 결정인듯이 외곡선전하였던것이다.

남조선의 정치세력들은 폭탄을 맞은것처럼 혼란에 빠졌다. 미국과 쏘련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비난이 비발쳤다. 그가운데서도 김구의 언행이 가장 격렬했다.

해방전부터 국제공동관리론을 반대해온 김구를 중심으로하는 림시정부세력은 즉각 강력한 반탁운동을 폈다. 남조선의 영구강점을 노린 미국의 계략에 넘어간 남조선의 이른바 《애국지사》들은 식민지로부터의 전진이 아니라 식민지에로의 복귀나 다름없는 국치이라고 하면서 반탁운동에 열중하였다.

림정세력의 반탁운동은 함께 반탁로선에 선 리승만친미매국세력에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기고만장해진 리승만은 1946년 6월에 지방순회강연을 하던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쪽에서만이라도 림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력설했다. 이틀후에 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정읍에서 한 연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리승만의 이런 엄청난 발언은 미국과의 사전교감의 결과였다. 당시 미제는 남조선에서의 《단선단정》안을 검토하고있었던것이다.

리승만의 《정읍발언》은 벌집을 쑤셔놓은듯 한 파장을 일으켰다. 좌익정당들과 단체들은 일제히 《반동거두 리승만은 조급한 정권욕과 광포한 파쑈리념을 더 참을수 없어 다

시 이러한 폭언을 토한것이다.》라는 등 신랄한 언사로 리승만을 공격했다.

좌익뿐만이 아니였다. 김구의 한독당은 《요즘 항간에는 <단독정부>수립설이 류포되고있으나 우리 당으로서는 이에 찬성할수 없다. 38°선의 장벽이 연장되는 한 경제상파멸과 민족이 격리되여 력사적인 큰 비극을 자아내고있음은 민족통일에도 큰 방해라 아니할수 없다. 앞으로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때에는 민족자체의 생존을 위하여 그대로 방관할수 없을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의 책동에 의해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조작되였고 1948년 2월 유엔소총회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안이 가결되였다. 조선의 분렬과 남조선의 영구강점을 노린 미국의 음모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구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엔소총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리승만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1948년 1월 남조선에 기여든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남조선정계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답시고 돌아쳤다. 매국노 리승만은 남조선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림정계와 통일진보단체들은 《단선단정》을 결사반대했다.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남조선에서만 유엔감시하의 단

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유엔소총회의 제안에 대한 반대여론은 과반수에 달했다.

그때 유엔소총회의 결의를 두고 고뇌하고있는 김구를 격분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그해 3월초부터 진행되고있던 장덕수암살사건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미군정재판소의 소환장이 김구에게 떨어졌던것이다.

김구는 하는수없이 미군정청회의실에서 열린 재판정에 출두했다.

민심의 견지에서 보나 민족통일에 대한 지향으로 보나 리승만은 자기가 김구를 앞설수 없다는 불안에 사로잡혀있었다. 저들이 손때묻혀 키운 주구 리승만의 위태로운 정치적립지를 간파한 미국은 1947년 12월초에 발생한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암살사건을 계기로 그 혐의를 김구와 한독당에 들씌우고 그가 여러차례 검찰에 소환되여 취조받게 함으로써 그의 인기를 떨구고 모욕을 주었다.

김구는 그때 겪은 일이 너무도 부끄럽고 원통하여 남들에게 이야기도 못했다고 한다.

이무렵 김구, 조소앙, 조완구, 김규식, 홍명희 등 7명의 인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그들은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하여 국제적승인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다는 리승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반쪽강토에 정부를 수립하려는 선거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어 김구의 한독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련맹은 행동통일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조종밑에 반통일세력들의 《단선단정》책동이 극도에 달하게 되고 분단위협이 시시각각 밀려오자 통일정부수립을 지지해온 세력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였다.

사실 해방후 서울에 돌아와 경교장에 거처를 정했으나 그가 택한 길은 의연히 반공의 길이였다.

김구가 1946년 2월 리승만이 총재로 있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총재로, 미군정자문기관 민주의원 부의장으로 활동한것도 그의 이런 반공의식에 기초한것이였다.

하지만 리승만의 《정읍발언》후 반기를 들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로심초사해온 애국자의 민족적량심은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단독정부》를 조작하여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과 리승만도당의 책동을 용납할수 없었다.

엄중한 사태앞에서 그는 민족적량심상 미국과 리승만의 민족분렬을 자초할 《단선단정》음모책동에 동조할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독립을 위한 출로도 찾지 못한터여서 몹시 고민에 빠져있었다.

반공관념에 사로잡혀있었던 김구로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집

권하고있는 북과 련합하여 이 난국을 타개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때 그는 북으로부터 남북협상제의를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당면한 조치의 하나로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몸소 발기하시였으며 남조선에 직접 련락원을 파견하시여 김구를 위시한 림정계인사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남북협상제안을 전달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북협상제안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김구를 비롯한 림정세력에게는 그야말로 어둠속의 빛과 같이 소중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협상방안에 호응해나선 김구, 김규식에게 1948년 1월 중순 친히 편지를 보내시였다.

이에 고무된 김구, 김규식은 공동명의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회답서한에서 남북지도자간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수립과 새로운 민주국가건설에 관한 방안을 토의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북의 공산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다 해소할수 없었던 김구와 김규식은 북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해 밀사 두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 련석회의개최를 불과 한주일 남짓하게 남겨놓은 시점의 밀사파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와 김규식이 들여보낸 밀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과거지사를 우려하는 김구, 김규식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여 우리는 지난 기간 나라와 민족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뉘우치고 잘 나오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이것은 우리가 일본놈들을 반대하여 산에서 싸울 때부터 견지한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오늘도 그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해있는 이때 김구선생과 김규식선생이 유엔의 비법적결정을 반대하고 미군철퇴를 주장하며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거부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고있는데 무엇때문에 과거를 묻겠는가, 지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비운에 처해있는데 그것을 타개해야지 지나간 과거를 론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우리는 최근 김구선생과 김규식선생이 담화와 성명을 통하여 표명한 립장을 잘 알고있다고, 우리는 김구선생이나 김규식선생과 과거를 론의하려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손을 잡을것이라고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백범 김구와 우사 김규식을 비롯한 우익정객들의 충격은 컸

다. 반공으로 살아온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인생말년에 이른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한점의 불티같이 깜박이는 우국지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믿음과 대해같은 도량에 가슴이 젖어들었다.

이미전부터 왜놈들이 그 존함만 들어도 벌벌 떨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던 김구는 그이의 부르심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평양련석회의에 참가할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였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련석회의참가소식에 당황해난 친미반동세력들은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의 기만정책에 속지 말라느니, 북조선에 가면 다 잡아가둔다느니 하면서 련석회의참가를 필사적으로 방해해나섰고 종파분자들은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림정계민족주의자들의 과거를 거들면서 《그들의 반공죄과때문에 평양에 가면 억류당할것》이라는 요언을 퍼뜨리였다.

한편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련석회의참가에 한생의 신조와 명예 지어 목숨까지도 걸었던 김구는 자기의 비장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남들이 갈라놓은 38°선에 동족끼리 말도 한번 못하고 마는 미욱한 민족이란 말을 듣기 싫다.》, 《만일 내가 북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김구는 통일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였다고 3천만동포에게 전하여주기 바란다.》

김구의 이런 북행선언을 통해 알수 있듯이 김구는 자기의 북행길이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대로 미국과 리승만의 《단선단정》책동을 막고 북과 남의 통일정부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김구의 평양행이 알려지자 경교장은 이를 만류하려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김구가 북으로 떠나는 날에는 이른새벽부터 미국과 리승만의 사촉을 받은 300여명의 극우익깡패들이 경교장을 포위하였고 떠나려는 김구의 자동차앞에 수십명이 드러눕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반동들은 자동차바퀴의 공기를 아예 뽑아버리고 흩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14시가 되여서야 김구일행은 뒤담을 넘어 경교장을 빠져나올수 있었다.

경교장에 있는 김구의 사무실에는 서산대사가 쓴 시구가 걸려있었다.

>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말아
> 오늘 나의 발자국은
> 뒤사람의 리정표가 되리니

백범 김구가 사생결단의 의지로 자못 엄숙하게 38°선을 넘어서던 그날은 1948년 4월 19일, 북에서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시작된 날이였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것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사실 일생을 반공리념에 몰두한 김구에게 있어서 공산당이 집권하고있는 북에 발을 들여놓은것은 일생일대의 선택이 아닐수 없었다.

그의 이때의 복잡한 심경이 바로 38° 선을 넘으며 《북녘동포들과 흉금을 터놓고 담판을 해보아서 안되면 38° 선을 베고 자살이라도 하겠다.》고 한 비장한 말에 녹아있었다.

평양에 도착한 김구일행은 아늑한 숙소에 들었다. 김구는 려장을 풀기 바쁘게 **김일성**장군님께 도착인사를 드려야겠다며 숙소를 나섰다.

김구일행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니 그이께서는 몸소 응접실에까지 나오시여 기다리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고 친근하신 음성으로 《김구선생!》 하고 불러주시며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 그이께서는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라고 하시면서 로령에 계시는분이 이처럼 먼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와 자리를 같이하시고 선생이 온

다는 소식을 듣고 련석회의를 시작하였다가 선생이 도착하지 않아서 휴회를 하였다고 하시며 선생이 오셔서 회의는 더욱 빛을 내게 되였다고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에게 련석회의 첫날소식을 알려주시고나서 이번 련석회의에 남북조선의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이 거의다 참가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일 선생이 회의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시 토론하여 회의에 제기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김구는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련석회의를 마련하시느라고 로고가 많으셨겠다고 자기의 심중을 터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년로하신분이 먼길을 오느라고 피곤하겠는데 푹 쉬라고 하시면서 련석회의는 23일까지 계속되고 앞으로 남북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회담도 있겠으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일을 보도록 하자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선생께서 평양에 머무르는 기간 불편한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제기하라고 하시면서 옆에 있는 한 일군을 가리키시며 이 사람이 자신의 서기라고, 자신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선생이 북에 와계시는 기간 사업과 생활에서 방조자가 필요하리라고 본다고, 그리하여 자신의 서기를 선생의 서기로 천거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숙소로 돌아가는 승용차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김구는 혼자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토록 큰 세기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장군께서 그렇게 젊은분이시였구나!》

4월남북련석회의 제2일 회의는 4월 21일에 진행되였다. 회의장은 첫날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으로 들끓는데다가 남조선의 한국독립당을 비롯한 몇개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더 참가하게 된것으로 하여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였다.

회의는 첫째 의정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연단에 나오시여 《북조선정치정세》라는 제목으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조선의 정치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고 분렬주의자들에게 된타격을 안기는 동시에 나라앞에 닥쳐온 영구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것으로 하여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숙소에 돌아간 김구는 밤깊도록 활자로 인쇄한 **김일성**장군님의 력사적보고를 몇번이나 읽어보면서 《과시 옳은 말씀이야! 옳은 말씀이야!》라고 경탄을 련

발하였다.

그는 과묵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였다. 한번 결심하면 요지부동이였다.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도고한 배짱으로 맞서온 그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넓으신 도량, 크나큰 포옹력과 감화력, 현명한 령도력앞에서는 성문같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제끼였던것이다.

한국독립당 위원장 김구는 제3일 회의에서 축사를 하였다.

그는 축사에서 평양에 와보고서야 만나보니 내 민족이요, 손잡아보니 피와 정이 통하는 한겨레임을 폐부로 절감했다고, 조국분렬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남북의 애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주, 민주, 통일독립을 전취할 대계를 의논하게 된것은 실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였다.

그는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가 존재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공동의 투쟁목표는 우리 조국을 분렬하고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남조선의 《단선단정》을 분쇄하는것이라고, 남조선의 《단선단정》의 분쇄를 최대의 임무로 삼고 전민족이 단결하여 백방으로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였다.

평양체류기간은 김구로 하여금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고 그의 반공리념에 균렬이 가게 한 나날이였다.

어느날 김구가 류숙하고있는 숙소의 뜨락으로 난데없는 강아지 한마리가 뛰여들어왔다. 알고보니 그것은 숙소앞길로 지나가던 쏘련군군관의 안해가 데리고 가던 강아지였다. 그 녀인은 곧 정문초소로 다가와 강아지가 뛰노는 뜨락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그런데 인민군보초병은 그를 뜨락에 들여놓지 않았다.

다른 위병근무성원에게 부탁하여 강아지를 돌려줄테니 보초소앞에서 기다리라는것이였다. 하는수없이 쏘련군군관의 안해는 다른 위병근무성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 광경을 김구가 보게 되였다.

범상히 여길수 있는 일이였으나 김구는 여기서 큰것을 보고 느꼈다. 인민군대의 당당하고 위엄있는 행동을 통하여 민족자주적권리를 행사하고있는 북의 실상을 확인했던것이다.

그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그러하듯이 북조선에서도 외국군대가 주인노릇을 하고있을줄로만 알았었다. 그래서 강아지가 뜨락에 들어왔을 때 그 부인이 거리낌없이 따라들어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은 억측이였다. 이곳은 남조선과 달랐다.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조선사람이였다. 엄연히 자기 민족의 권위가 서있고 자주권이 확고히 보장되여있는 북반부였다.

김구의 머리속에는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이전에 본

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민족주체의식이 강한 애국자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새겨졌다.

김구의 반공정신에 큰 균렬이 가게 한것은 만경대혁명학원과 만경대방문에서였다.

김구의 일행은 먼저 만경대혁명학원에 들렀다. 학생들은 공을 차며 즐겁게 놀고있었다. 그들은 학원이름그대로 모두가 지난날 반일투쟁의 길에서 희생된 렬사들의 자녀들이였다.

그를 안내한 학원 원장은 리종익이였다. 그로 말하면 한때 상해림정에 관여하였던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로서 김구,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등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애국의 마음을 값높이 헤아리시고 부모잃은 유자녀들에게 정을 붙이고 친부모와 같은 애정을 깡그리 부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학원 원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적임자로 몸소 리종익을 선정해주시였던것이다.

김구는 그의 안내를 받는것이 무척 반가웠고 그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렬사들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학원을 돌아보다가 중국 남만에서 독립군 사령을 하던 량세봉의 아들을 만나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김구는 너무도 놀랍고 반가워 량세봉의 아들을 그러안고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자기는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배척하였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반일투쟁의 길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한품에 안아 금지옥엽으로 키워주고계시지 않는가.

믿으면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원장선생, 이 어린것을 보니 내가 부끄럽소.》

김구는 이렇게 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한다.

그는 해방후 남조선에 돌아와서 반일의 길에서 함께 싸워온 동료들에게도 세방 하나 변변히 마련해주지 못했고 그들의 처자들을 이국땅에 널어놓은채 아직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무엇을 해온 사람으로 자부해왔던것이다.

그는 이 모든것이 부끄러웠다. 그는 학원에서 독립렬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 진정한 애국의 륜리를 보았다.

하기에 김구는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웠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다.

《나는 북조선당국이 빨찌산투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학원에서 독립군 사령의 자제까지 공부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학원에는 빨찌산의 자녀들뿐 아니라 국내에서 로조, 농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녀들도 있다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라면 그가 어떤 계렬이든지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김구는 감격하여 이 학원은 민족단합의 상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날 김구일행은 학원을 떠나기 전에 기념촬영까지 하였다.

이어 김구일행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다. 일행이 만경봉에 올라 신묘한 절승에 한껏 취하고나서 오솔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앞에 자그마한 초가집이 나타났다.

그들은 초가집앞에 이르러 수수대로 남새밭울바자를 엮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마주치게 되였다. 김종항이 할아버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것을 본 김구는 누구신가고 물었다. 김종항이 **김일성**장군님의 할아버님이시라고 소개하였다.

김구와 일행의 입에서는 탄성이 울려나왔다. 그들은 장군님의 조부님께서 사시는 집이라면 으리으리한 궁궐이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어마어마하게 지키고있을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 나라 농촌 어디서나 볼수 있는 초가집이였다. 그 집에서 70고령의 할아버님께서 한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지금도 여전한 모습으로 일손을 놓지 않고계시는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여서 일행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윽고 김구는 숭엄한 자세로 머리숙여 할아버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할아버님께서는 그가 초면이 아니였다. 수십년전 황해도 안악에서 왜놈장교를 죽인 김구가 감옥에서 탈출하여 은거생활을 할 때 평양교외의 대보산 령천암에서 중노릇을 하며 동냥하러 이 초가집에도 몇번 찾아온 일이 있었던것이다.

할아버님께서 이런 옛일을 상기하시자 김구는 무척 놀라워하며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 위대한 가정과 일찌기 그런 인연이 있을줄은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김구는 한동안 깊은 감회에 잠겨있다가 할아버님의 굳은살이 앉은 거치른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손주님을 일국의 수령으로 두신분이 왜 이렇게 험한 일을 아직도 하고계십니까?》

《내 손자는 나라의 수령이지만 나는 철 알아서부터 한평생 농사로 늙어왔은즉 농사는 천하지대본인데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손자가 보는 나라의 정치도 잘될것이 아니겠소.》

김구는 또 감동되였다. 만고의 영웅이신 장군님도 위대하시고 언제까지 평백성으로 계시는 장군님의 할아버님도 위대하시다!

이날 밤 만경대의 초가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김구일행과 만경대부락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소박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김구는 만경대를 떠나면서 일행앞에서 나는 오늘 장군님의 할아버님을 만나뵙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일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감동되였다, 참으로 훌륭하다고 거듭 찬탄을 표시하였다.

이날 밤 숙소에 돌아온 김구는 흥분으로 잠들지 못하였다. 흰서리가 머리에 내려앉도록 독립운동에 한몸바쳐왔다고 노상 자부했지만 이 나라에 해방과 건국의 꽃을 피운 참애국의 력사를 모르고 살아온 자신을 발견했던것이다.

이튿날 아침 김구는 자기의 막료들을 방에 모이게 하고는 경건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어제 당신들과 같이 장군님의 만경대생가를 방문하여 조부모님을 뵈옵고 참으로 느낀바가 크오.

나는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왔는데 **김일성**장군님 같으신분을 일찌기 뵈옵지 못한것이 크게 한이 되오. 내 한생의 오유는 여기에서 비롯된것이오.

김일성장군님 같으신분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는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무엇때문에 공산주의를 나쁘다고 하였겠소. 조선은 참으로 훌륭한 주인을 만났소.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셔야 조선은 행복하게 될수 있소.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어느날 그는 자기의 심정을 또 이렇게 터놓았다.

《북조선에 와보니 마음에 듭니다. 상해에서도 남조선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은 다릅니다. 나는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이란 협애하고 몹쓸 사람들인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와보니 당신들은 도량이 크고 관대하여 얼마든지 합작할수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들과 합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김구만이 아닌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등 민족주의인사들의 일치한 심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의 진심으로 되는 애국적지향과 련공합작결의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5월 2일 김구는 쑥섬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 지도부성원들의 협의회에 참가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적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잡을것이라는 단합의 사상을 천명하시고 하늘을 믿어도 남의 나라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는 자주의 철리도 밝혀주시였으며 남조선에서의 《단선단정》책동을 짓부실 투쟁방략도 명시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특별히 야외오찬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대동강의 이름난 물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오찬을 마련하였다고, 별반 차린것은 없으나 어서들 많이 들자고 하시며 손수 어죽과 숭

어회를 옮겨놓아주시였다.

김규식은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숭어회와 어죽, 록두묵은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였고 김구도 대동강의 숭어맛은 별맛이라고 하였다.

정녕 김구를 비롯한 남조선정객들에게 있어서 쑥섬의 이 하루는 민족이 낳은 탁월한 령도자를 한자리에 모신 화기애애하고 꿈같은, 한생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오늘 이 력사적인 장소에는 통일전선탑이 세워지고 그날의 사적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매혹과 숭배심으로 가슴끓이던 김구는 이날 자기를 단독으로 만나주실것을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다음날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련공합작문제를 비롯하여 미제의 《단선단정》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가르쳐주시였으며 그의 신변에 대해 걱정해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커다란 감격을 금치 못하며 김구는 장군님, 북에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장군님을 받들어 일하겠습니다, 내 이제 다 늙은

것이 무슨 정권욕이 있겠습니까, 아무 야심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장군님께서 애쓰시면서 닦아놓으신 모든것을 보고 조선이 정말 위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끄실분은 장군님뿐이십니다, 나는 모든것을 장군님께 맡깁니다, 나의 명예이며 생명으로서 한생을 수호신같이 지켜온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장군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왔던 림정인장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인장을 김구쪽으로 밀어놓으시면서 선생이 내놓은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은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그 인장은 받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이 있으면 됩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림정인장은 김구와 그의 동료들이 보물중의 보물처럼 여겨왔다고 한다. 그것은 상해 프랑스조계지의 한 골목에 있던 컴컴한 림정청사안에서나 머나먼 남경, 중경에로의 피난길에서나 그리고 귀국의 수만리길에서도 마치 거기에 온갖 미래가 있는듯이 수호신처럼 그가 품에 안고있던 림시정부의 상징인 큰 도장이였다. 그 인장까지 장군님께 바치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우익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자기 운명의 전부를 위대한 수령님께 의탁한데 대한 재확인이였던것이다.

《장군님, 앞날의 통일된 조선을 위하여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삼가 축원합니다.》

이것이 백범 김구가 위대한 수령님께 마지막으로 올린 말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과 성의앞에서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반공인사도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가 하루아침사이에 우리한테로 돌아섰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가 림정을 인정하지 않은 미군정의 처사가 고깝고 또 단순히 리승만과 의가 맞지 않아서 반공대신 련공을 한것도 아닙니다. 항일의 나날로부터 뜨겁게 간직해오던 애국의 열정이 우리와 김구를 하나로 융합시킨것입니다.》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주의세력 지도급인사들이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평양에 체류한 기간은 보름정도였다.

사람의 한생에서 보름기간이란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간에 하나의 인생대학을 나왔으며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해 통일적중앙정부는 반드시 수립될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았다.

민족사의 한 페지에 오르다

5월 5일 저녁 김구와 그일행은 서울에 도착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백범이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데 대하여 크게 전했다.

이튿날 김구와 김규식은 내외기자들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북 제 정당 련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도 세계의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수 있다는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써 증명한것이다. 이 회의는 자주적, 민주적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남조선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미쏘 량군철퇴를 요구하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것은 우리 독립운동의 력사적신발전이며 우리에게 큰 서광을 주는바이다. …

우리가 이것으로써 만족을 느낄수는 없는것이다. 이미 거두어진 성과를 가지고 최후의 성공을 하는것은 오직 우리의 애국동포전체가 일치하게 노력하는데 있을뿐이다. …》

그날 기자회견에서 김구, 김규식은 《우리는 이번에 평양

에 가서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진정한 애국자가 어느분이신가를 똑똑히 알았다.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북조선에서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있다.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나쁘다는것은 미국인들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단선단정》책동을 견결히 규탄배격하였다.

사람들은 경교장, 삼청장으로 모여들었고 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들을 찾아다니였다.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북에 다녀온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과 숭고한 천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4월남북련석회의결정을 받들고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구는 자기 친지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장군님은 젊으신분인데 참 너그럽다고, 모든 문제에서 조선사람의 립장에 서계신다는것을 똑똑히 알았다고, 과거 중국에서도 남에서도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장군님 같은 공산주의자는 처음이라고, 조선이 낳은 군사전략가이신줄만 알았더니 정치에서도 천재적지략으로 만사에 정통하셨다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장군님이 계시는데 감히 반공나발을 불면서 독립이요 뭐요 하고 떠들던 일이 부끄럽게 생각된다고, 나는 **김일성**장군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가겠다고,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라고 력설하였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남북협상파세력은 회의를 열고 당면한 5.10단선반대투쟁방략을 토의확정하였다.

남조선에서의 5.10단선반대투쟁은 비합법적투쟁과 합법적인 투쟁이 서로 결합되여 고조를 이루었다. 여기에 호응한 광범한 대중의 5.10단선반대시위로 하여 말그대로 온 남녘땅은 반미반파쑈투쟁으로 들끓었다.

특히 이미 그해 4월 3일에 무장봉기를 일으킨 제주도인민들은 5.10단선을 전후하여 그 대오를 확대하고 섬안의 경찰서와 경찰지서, 선거사무소들을 습격, 파괴, 소각하고 악질경관, 주구들을 처단하여 단독선거책동을 완전히 파탄시키였다.

서울시로동자들은 5월 8일 단선반대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호응하여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망국단선반대투쟁에 떨쳐나섰는데 선거당일에는 도처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마치와 낫을 들고 경찰지서와 선거사무소, 투표소들을 들부시고 악질후보자와 경찰, 반동단체두목들을 처단하였다.

모든 사실은 5.10단선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했다.

하기에 선거를 감시한다고 하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성원들속에서 선거결과가 조선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리라는것을 의심하는 대표도 있었고 남조선의 선거를 전국적인 선거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대표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은 자기식의 강도적론리를 가지고있었다. 미국은 우선 선거결과를 날조해놓은 다음 친일파, 친미파, 민

족반역자들로 이른바 《국회》를 구성했다.

리승만은 《이 국회에서 수립될 정부는 3.1운동으로 수립된 림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정부》,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대표기관》이라고 지껄여댔다.

그러자 김구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현재의 반쪼각 정부로는 계승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를 하나 아니라 열개를 만들었대도 법적으로 조직이 안된 정부는 법통을 계승할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구는 유엔총회에서 괴뢰정권을 승인한데 대하여 남조선《정부》는 분단《정부》이므로 림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정부》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괴뢰대통령취임식이 진행되고 리승만이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리승만은 자칭 반일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극구 찬양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모독한 주일공사 스티븐스를 저격한 전명운렬사의 법정통역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테로범이라는 리유로 통역을 외면한 반역자였다. 리승만은 일본을 몰아내주면 조선을 미국의 위임통치령으로 내주는 조건으로 미국힘을 빌리자고 주장하다가 독립운동진영에서 쫓겨나다싶이 한 정치투기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자기의 오랜 경쟁자이며 정치적적수인 김구와 같은 항일독립운동가나 그 지지자들을 자

연히 따돌리였던것이다.

여기에 인디아의 이전 수상 네루가 쓰던 모자에 대한 일화가 있다.

네루가 쓰고 다닌 모자는 인디아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서 쓰고있던 모자이다. 몇차례의 감옥살이를 한 네루는 감옥밖에서도 그 모자를 벗지 않았다. 감옥안에 있으나 감옥밖에 있으나 영국의 수인과 다를바없다는 울분과 민족적자각에 따른 행위였다.

1950년에 인디아는 제헌의회에서 인디아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네루가 쓴것과 같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였다. 독립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경력이 없는 사람은 한명도 국회의원으로 뽑히지 않았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조작된 《단독정부》는 일본식민지통치시기 일제에게 아부하고 그 하수인으로 전락되였던자들, 민족반역자로 지탄받고 처단되였어야 할 범죄자들로 구성되였으니 그 정통성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그 생리자체가 반민족적, 반인민적일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은 6월초 보다 조직적으로 5.10단선무효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통일독립촉성회를 결성키로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48년 9월 하순 80여개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남북

협상파세력은 대표협의회를 열고 통일독립촉성회를 련공통일, 평화통일을 지향해나가는 통일촉진협의회로 고치였으며 김구를 주석으로,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선거하였다.

통일촉진협의회는 남조선정계와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미군철수》, 《리승만과 그의 북벌전쟁도발책동반대》, 《친일파, 민족반역자처벌》, 《평화통일》, 《남북협상》을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김구는 통일촉진협의회 성원들과 친지들에게 조선을 바로잡을 영웅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로선을 받들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또한 의연히 반공에 집념하고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준절히 타일렀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그의 마음을 꺾어보려고 갖은 위협과 권모술수를 다 썼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구는 남북협상과 미군철수에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이전 쏘련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1948년 중순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 1일까지 조선주둔 쏘련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남조선주둔 미군의 동시철수를 제의하였다.

김구는 쏘련군이 철퇴를 선포한것은 조선민족이 무엇을 갈망하고 주장하고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정치행동이

라고 하면서 미군주둔을 고집하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통일촉진협의회는 경교장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김구와 김규식의 공동명의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외국의 간섭이 없이 완전한 민족자결과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조선의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는것을 협조할데 대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였다.

1949년 봄 김구의 측근들은 그에게 테로분자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으니 공주의 조용한 절간에 가서 은거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김구는 《끝까지 통일운동을 해야지 쉰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면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6월 26일 김구의 련공통일운동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미국은 군복입은 괴한을 시켜 그를 경교장 2층 그의 사무실에서 살해하였다.

살해범이 미군방첩대의 정보원이라는것, 범인자신이 후날 미국사람들이 백범을 싫어하였고 언젠가는 미국의 비밀자료에서 《백범제거계획》 같은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당시 미국의 가장 골치거리가 백범이였다고 증언한것은 김구살해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적라라하게 립증하고있다.

괴뢰군당국에서 발표한 《범인의 진술》은 김구가 《단독정부》반대, 평화통일이름아래 공산당과 제휴, 남북정치협상에 의한 련립정부수립 기도, 미군철수 주장, 미국경제원조

반대, 북조선찬양 등 불온선동을 하였기에 암살을 감행하였다는것이였다.

일제가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와 암살에 혈안이 되였지만 무사히 조국에 돌아온 그가 미국의 총탄에 해방된 조국에서 끝내 쓰러진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였다.

김구가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바친 기간은 짧았으나 70평생의 한순간에 찾은 진리는 거대하였다. 그는 실천으로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길에 진정한 애국애족이 있고 인간의 값높은 삶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가 살해되였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매우 가슴아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련석회의결정을 실행하겠다고 하던분이 돌아가다니. 그렇게 바라던 통일의 날도 보지 못하고 가다니?…》 하시며 살인자들에 대한 분격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 가슴아픈 일이라고, 그는 비록 늦게나마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서서 련공을 지지한 량심적인 민족주의자이라고, 아까운분을 잃었다고 침통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서울에는 김구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국민장위원회가 조직되였다. 평소에 백범 김구를 두려워하고 극도로 미워하던 리승만은 큰 선심이나 베풀듯이 낯간지럽게 김구의 장례를

《국장》으로 할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장례주최측에서는 생전에 남조선의 《단독정부》를 통일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리승만의 요구를 거절하고 국민장을 치르기로 했던것이다.

1949년 7월 5일 김구의 장례식날에 남조선의 각지에서 모여든 군중은 수십만에 달하였다. 군중들은 백범추도가를 부르며 나라의 통일독립투쟁에 한생을 바친 백범 김구와 눈물속에 영결하였다.

백범 김구는 련공애국의 길에서 북과 남의 인민들이 다같이 존경하고 기억하는 통일애국인사가 되였다.

1990년 평양의 쑥섬에 건립된 통일전선탑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는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민족사에 기록되였다. 2000년 6월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장소였던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백범 김구선생회고모임이 열리고 김구의 동향친구와 련석회의당시 김구의 비서였던 안우생의 아들, 련석회의 대표들을 비롯한 연고자들이 김구의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김구가 세상을 떠난지 50년이 되는 때에 남조선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존경하는 인물 1위로 선정되여 남녘 인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열렬한 애국지사로 자리잡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기도록 삶을 빛내이는것은 바

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내세워줄뿐아니라 력사의 갈피에 기록될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민족의 어버이의 품속에서만 가능한것임을 백범 김구의 한생이 말해주고있다.

려 운 형 편

독립의 길을 찾아 수만리 ······ 60
백두산을 우러르며 ······ 68
해방정국의 와중에서 ······ 78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85
숭고한 의리속에 영생하는 삶 ······ 94

경력

- 1886년 4월 22일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
- 1918년 신한청년당 조직.
- 1919년 상해조선인거류민단 단장.
- 1920년 고려공산당 입당, 이전 쏘련에서 열린 제2차 원동피압박민족대회 참가.
- 1926년 중국국민당 제2차대회 참가.
- 1929년 대전형무소 수감.
- 1933년 조선중앙일보사 사장.
- 1944년 건국동맹 조직.
- 1945년 8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 위원장으로 활동.
- 1945년 10월 조선인민당 조직, 당수로 활동.
- 1946년 남조선민전, 좌우합작위원회 조직.
- 1947년 7월 미제와 반통일분자들에 의해 피살.
- 1990년 조국통일상 수상.

1999년에 남조선의 한 잡지가 서울에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교육단체를 상대로 《해방후 남조선에서 가장 뛰여난 정치가가 누구인가》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려운형이 앞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해방된 후 남조선에는 얼마나 많은 혁명가, 애국자, 지도자들이 출몰했던가. 심지어 해방과 함께 청산되였어야 할 친일분자들도 미국의 비호밑에 되살아나 자기를 《애국자》로 자처하며 설레발을 치고다닐 정도였다.

그런데 려운형이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난 후에도 이렇듯 제노라고 하던 인물들을 다 제치고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인정받고있는것은 그의 높은 인격에 대한 반증으로 된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눈을 틔워준다는 말이 있다.

려운형이 반통일분자들의 흉탄에 쓰러졌을 때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렇듯 거대한 애도의 물결을 만들었던가.

독립의 길을 찾아 수만리

외세의 침략을 막고 부패한 봉건왕조의 개혁을 꿈꾼 젊은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때로부터 두해가 지난 1886년에 경기도 양평의 어느 한 량반집에 새 생명이 태여났다. 이름은 려운형.

그러나 이 명문가의 집안에도 망국의 락조가 비끼였다.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두고 통탄하던 그의 할아버지는 가문의 기쁨이였을 손자의 출생에 《몽양》이라는 호를 선물했고 그 손자는 후날 망명시절에 자기는 《꿈에도 해가 그리워 몽양》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려운형의 당대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과 애국심이 싹텄는지 모른다.

그는 부모의 3년상을 치르며 당시 국권회복을 목표로 벌어지던 국채보상운동에 뛰여들어 웅변을 하기 시작했다. 뛰여난 웅변가로 소문난 그를 두고 사람들은 《입을 열면 청중을 웃기고 울리기를 자유자재로 한다.》고 엄지손가락을 내들었다.

려운형은 독립운동을 위해 가정내의 개혁부터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자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집안에 있던 력대 신주들을 땅속에 묻어버렸으며 하

인들을 모두 모여놓고 그들의 눈앞에서 종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해방하였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대들을 다 해방시키겠다. 이제부터 저마다 제 마음대로 움직여라. 이제부터는 상전도 종도 없다. 그러므로 서방님이니, 아씨니 하는 말부터 입에 올리지 말아. 사람은 날때부터 똑같다. 상전과 종으로 나누는것은 어제까지 풍습일뿐이다. 오늘부터는 그런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제 뜻대로 살아가라.》

그는 어린시절부터 가문의 과격한 계급사상을 배척하면서 신분의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량반과 상민의 차이가 심했던 당시 려운형은 불쌍한 친구들을 측은하게 생각할줄 알았고 상민이나 하인들이 량반에게 천대와 억눌림을 당하는데 대해 늘 동정적이였다. 성장해서는 동네에 상사가 나면 종이든 상민이든 가리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보살펴주었다.

한번은 전염병에 걸려 죽은 이웃마을 청년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까지 치러주었다고 한다. 그 시절 량반집 도련님이 종과 어울리고 종의 상여를 멘다는것은 하늘이 뒤집히는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였다.

일제가 강요한 망국의 치욕은 순박했던 그를 봉건가정의 대문을 벗어나 직업적인 정치가로 되게 하였다.

강원도 강릉의 초당의숙에서 청년교육에 전념하던 그는 반년만에 《한일합병》소식에 접하자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금강산 등 강원도의 여러곳을 떠돌았다. 그러나 105인사건(일제의 초대총독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려운형은 외국망명의 길에 올랐다.

1913년 상해로 건너간 려운형은 다음해에 남경의 금릉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으며 여기서 손문, 진독수 등 당대의 중국지식인들과 사귀게 되였다.

1918년 12월 상해망명객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생겼다. 상해에 날아든 미국대통령 윌슨의 특사가 다음해 1월에 개최되는 빠리강화회의에 중국도 대표를 파견할것을 중국의 국민당정부에 권유하면서 그 회의야말로 세계 여러 약소민족들이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따라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던것이다.

미국의 28대대통령 윌슨은 그해 1월에 미국회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종결후의 강화조건으로 《14개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중 제5조는 《식민지종주국의 요구와 해당 식민지주민의 권익을 대등한 립장에 놓고 주권을 결정짓는 원칙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고 공평하게 식민지요구문제를 조정한다.》는것이였고 제14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이 두 조항을 통칭하여 《민족자결론》이라고 하였다.

《민족자결론》은 다민족국가인 쏘련을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며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력을 막고 식민지약소국가인민들을 서로 리간시키는 한편 전패국들의 령토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목적을 노린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구호였다.

그러나 려운형은 이 《민족자결론》에 큰 기대를 걸고 상해에 가서 윌슨의 특사를 만났다.

그는 특사에게 빠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우리도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참상과 일본의 야만적침략상을 폭로해야겠다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특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실 려운형은 미국에 큰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배재학당시절에 알았던 미국인들은 약소국의 은인처럼 보였다. 그는 미국의 도움으로 조선독립을 해보자고 미국인선교사 챨스, 알렌, 언더우드 등과 친교를 맺었다.

려운형은 바로 그 미국인들이 우리 민족의 벗이 아니라 원쑤이며 후날 자기의 비참한 최후가 미국의 모략의 산물임을 아직은 알수 없었던것이다.

윌슨의 특사의 위선적인 약속에서 힘을 얻은 려운형은 빠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자면 조선민족의 독립의사를 정식 표명할만 한 민족단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동료들과 함께 상해에서 급기야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한편 그는 천진에 가있던 김규식을 불러 신한청년당 대표로 빠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독립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표로 가는 김규식에게 보내는 한편 미국의 특사에게도 한통 주어 조선대표가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강화회의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려운형을 비롯한 민족주의인사들이 이처럼 미국과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건것은 그들의 머리에 미국에 대한 환상이 그만큼 뿌리깊이 남아있었기때문이였다.

윌슨의 이 특사란자는 빠리강화회의에 려운형에게서 받은 독립진정서를 아예 전하지조차 않았다.

한편 빠리에 간 김규식은 강화회의에 참석한 미국대통령과 영국수상, 프랑스정부수반에게 《조선독립에 관한 탄원서》와 《조선민중의 주장》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윌슨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대표들은 조선독립청원 같은것은 이번 회의성격에 맞지 않으니 새로 창설될 국제련맹에나 제출해보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되여 김규식은 빠리강화회의가 진행되는 베르사이유궁전문앞에 가보지도 못한채 주저앉고말았다.

윌슨의 《민족자결론》의 기만성은 이렇게 증명된셈이였다. 미국은 이미 1905년 7월에 미륙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총리 가쯔라 다로의 도꾜밀약에 따라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보호통치》를 인정하는 대

신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인정받았던것이다.

이것을 알리 없는 려운형은 미국에 대한 기대와 독립의 푸른 꿈을 안고 김규식을 빠리로 떠나보낸 후 북만주와 서북간도, 씨비리, 이르꾸쯔크와 할빈 등을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3.1인민봉기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피어린 반일투쟁과 독립운동자들의 활동을 《어리석은 행위》로, 《일본의 조선통치는 당연한것》이라면서 일본을 도와나섰다.

려운형은 실망하였다. 이제는 미국도 믿을수 없었다. 간도의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도 파쟁과 일제의 탄압속에 지리멸렬되여가고 자신이 관여하고있던 상해림정도 믿을수 없었다.

당시 림정은 파쟁에 혈안이 되여있었고 인두세와 구국의무금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공채까지 발행하고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관찰사, 군수, 면장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라는것을 주고 그 직함에 따라 해당한 금품을 받아들이는 매관매직까지 하였다.

려운형은 처음에는 림시정부수립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일단 림시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림시의정원 의원과 외교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림시정부의 선전활동에 힘썼다. 그후 림정이 유명무실해지자 독자행동에 들어갔으며 국제공산당과 련계를 가지는 등 자기식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맑스와 엥겔스가 1848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공산당선언》을 1922년에 우리 말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려운형이라고 할 때 그의 학구적태도와 새 사상에 대한 열망을 과히 짐작할 수 있다.

려운형은 쏘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자주 만났다.

이미 빠리강화회의에서 드러났듯이 미국과 렬강들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해진 반면 사회주의 10월혁명을 통해 등장한 쏘련은 아시아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기때문이였다.

그는 국제공산당과 련계하는 과정에 고려공산당에도 가입하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원동피압박민족대회에도 참가하여 레닌을 비롯한 쏘련공산당 지도자들과 회담하면서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려운형은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상해에서 기자로 일했고 중국국민당 당수 손중산과도 련계를 가지며 자기딴의 독립의 길을 모색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각지로 다니며 독립을 부르짖었다. 1929년 7월 그는 필리핀에 가서 이 나라 미국계신문 《필리핀 프레스》 기자가 초대한 환영회에서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서 일본과 유미제국주의를 쫓아내자고 연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마닐라경찰을 통해 그를 체포하고 려권을 빼앗았으며 상해로 추방된 그를 일본경

찰이 체포하도록 일본에 통보하였다.

독립의 길을 찾아 이역의 수천수만리를 발이 닳도록 동분서주하였지만 일제의 마수에 걸려 끝내 조선으로 압송되여 몇년간의 감옥살이를 한것이 그에게 차례진 운명이였다.

백두산을 우러르며

려운형의 반일투쟁과정에는 우리 겨레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일화들이 적지 않다. 그중의 대표적인것이 려운형의 일본방문일화들이다.

거족적인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조선민족의 견결한 독립의지에 질겁하여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꾼 일제는 《문화통치》의 생색을 내기 위한 회유책의 하나로서 1919년 8월경에 려운형을 도꾜에 초청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일본당국은 상해림시정부의 외무차장직에 있으면서 상해조선인거류민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려운형이 비교적 중간파적인 물로서 조선의 민족주의자들과 청년학생들속에서 일정하게 인기가 있다고 보았다. 대조선정책작성에 필요한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일본에 불러다 《한일합병》의 정당성을 납득시켜 널리 여론화하면 효과가 클것으로 타산하였던것이다.

한편 이 기회를 리용하여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과시할 생각을 품은 려운형은 효자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듯이 자기의 결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주위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당국

의 초청에 응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해독립운동가들은 찬반론으로 분분했다고 한다.

려운형은 일본당국의 《안전한 신변보증》담보를 받고 3주간 도꾜에 머무르면서 일본 륙군상, 내각상, 체신상 등을 만났다. 일제의 고위관리들은 려운형을 회유도 하고 한편으로는 협박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즉각적인 독립외에는 자치고 무엇이고 용납할수 없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그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라는자가 도꾜에 와있었는데 그를 만난 려운형은 악수를 하면서 《서울역에서 강우규의사 폭탄에 얼마나 무서웠는가?》고 야유했다.

그의 이 말은 서울역에서 조선총독 사이또를 처단할 목적으로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렬사의 의거를 념두에 둔것이였다. 그러나 강우규렬사의 폭탄은 명중하지 못하여 옆에 있던 수원 몇명만 부상시켰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자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던것이다.

단도직입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려운형의 기습에 당황한 그자는 얼굴이 시뻘개졌다고 한다.

약이 오른 그자가 얼마후에 《그대는 조선을 독립시킬 자신이 있는가?》라고 묻자 려운형은 즉시 《그대는 조선을 통치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의 뛰여난 순발력과 기지, 담찬 배짱을 보여주는 순간이였다.

려운형과 동행했던 한사람은 당시를 회고하며 몽양 혼자 일본의 실권자들과 정의로 맞서싸우는데 나는 처음 정의가 무섭다는것을 깨달았다고,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꼴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통쾌하다고, 그때 그자의 거동은 몽양앞에 선 어린애 같았다고 했다.

어느날 려운형은 일본의 한 각료와 마주한 자리에서 《조선의 만세운동은 개 한마리가 짖으니 모두 따라짖는 격》이라는 야비한 말을 듣게 되였다.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를 모독하는 이 말에 려운형은 즉시 《새벽이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닭은 일제히 울기마련이다.》라고 응수하여 상대방을 압도해버렸다.

그리고는 일본의 제국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의 특파기자,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등 500여명앞에서 《어느 집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이웃집 닭도 따라울기마련이다. 그러나 그 닭은 다른 닭이 운다고 우는것이 아니고 때가 와서 우는것이다. 때가 와서 생존권이 량심적으로 발작된것이 조선의 독립운동이요, 결코 <민족자결주의>에 도취한것이 아니다.》라고 언명했다.

이 말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여있었다. 당시 일본놈들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건 론거는 《조선

인들은 독립이나 근대화를 리해 못하는 몽매상태에 있다.》는 것이였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민족자결주의》의 의미도 리해하지 못한채 주견이 없이 남의 주장을 덮어놓고 따른것이 바로 3.1인민봉기라고 빈정거린것이다.

이에 대해 려운형은 3.1인민봉기가 민족적자주권과 독립을 절절히 바라는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에 대한 자각에 그 근원이 있다는것을 밝혔던것이다.

이날 려운형은 무려 1시간 20분에 걸치는 독립웅변을 토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것은 우리의 자의가 아니고 일본의 강박에 의한 절대부당한 일이다.

조선독립은 조선국민을 위해서뿐아니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것으로서 나는 조선의 독립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조선이 자주독립하는 길은 우주, 자연의 법칙이며 신이 명하는 민족의 권리이다.》

…

이날의 려운형의 발언은 《조선의 청년지사 독립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제국수도 한편에서 불온언사 란무》라는 제목으로 각 신문들에서 크게 보도했다. 이 독립웅변으로 하여 일본정계는 발칵 뒤집혔다.

려운형을 구슬려 독립의지를 꺾으려던 일제는 약속하였던

총리대신과 왜왕면담을 취소하였고 쓴입을 다시며 하는수없이 그를 상해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음해초에 열린 일본의회는 《려운형 독립연설 규탄의회》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론쟁을 벌렸고 려운형을 중죄인으로 체포하지 않은 내각은 궁지에 몰리게 되였다.

일본 도꾜에서의 열렬한 독립웅변으로 하여 려운형은 일약 유명한 반일독립투사로 공인되였다. 려운형이 상해로 돌아오자 림정기관지 《독립신문》 등은 일본에서의 그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다.

그때로부터 스무해가 지난 다음의 일이지만 1940년대초 려운형은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의 주선으로 또다시 일본에 갔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그는 일본말에 능했지만 조카를 통역으로 데리고 다녔다.

일본 총리대신을 만났을 때였다. 그는 려운형앞에서 남작의 칭호를 봉하며 대만총독으로 임명한다는 왜왕의 칙령을 내리읽고 그에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려운형은 남작, 총독보다 더 높은 벼슬을 준다 해도 독립된 조선에서 머슴군으로 사는것보다 못하다고 단마디로 잘라말했다고 한다.

그때 려운형이 도꾜에서 왜왕과도 당당하게 면담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의 조카의 표현에 의하면 려운형은 놈들의 심정을 살펴가며 어떤 때는 호령하고 어떤 때는 어루만지기도 했다는것,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는것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뜻과 대중적신망으로 하여 려운형은 일제당국이 볼 때는 《먹기도 뱉기도 어려운》 존재였다.

상해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조선으로 압송된 후 대전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옥한 그는 그 이듬해 봄부터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다음해에 조선체육회를 뭇고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말 3대신문으로 불리우던 《조선중앙일보》는 렬세상태에 있었는데 웅변가이고 이름있는 정치가인 그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일약 인기신문으로 되였다고 한다.

그가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에 국내를 들었다 놓은 일장기말소사건이 일어났다.

어느날 베를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 손기정이 려운형을 찾아왔다.

《선생님, 일장기를 달고라도 과연 올림픽에 나가야 합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때 려운형이 한 대답은 얼마후에 열렸던 선수단환송식에

서 한 그의 말이 대신해주고있다.

그리스도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선수단환송식에서는 려운형에 앞서 친일파의 거두인 윤치호라는자가 환송사를 했다. 그것을 쥐여짜면 《일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것이였다.

이때 려운형은 마이크를 나꿔채며 이렇게 말했다.

《제군들!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등덜미에는 조선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리준, 안중근의 후손답게 반드시 이겨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보여주라.》

1936년 8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11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에서 손기정선수가 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리 나라의 남승룡선수는 3등을 하고 동메달을 쟁취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하늘가에 휘날린것은 저주로운 일장기였다. 손기정선수의 가슴에도 일장기가 걸려있었다.

그때 《동아일보》에서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을 발간했는데 이 사진이 나가자 온 민족이 통쾌감으로 법석 끓었다.

이 일로 하여 일제는 《동아일보》에 무기정간처분을 내리고 사장이하 편집지도일군 11명을 검거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이 국제마라손경기에서 우승한 조선사람 손기정을 얼마나 일본사람으로 인정하고싶어했는가 하는것은 그때

로부터 80여년이 지난 2020년 3월 도꾜에 세운 올림픽박물관에 손기정을 일본사람인듯이 소개한것만 보아도 그 집요성과 끈질긴 야욕을 잘 알수 있다.

려운형은 매일 축구선수복차림으로 휘문중학교 운동장에 나와 서울시내 청년학생들과 휩쓸리며 친숙하게 지냈다.

이 과정에 그는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인기있는 체육애호가로, 정치가로, 반일애국지사로 떠받들리웠다.

이미전부터 백두산에서 조선군대를 무어 항일무장투쟁을 벌리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무한히 경모해오던 려운형은 1937년 6월초 보천보전투승리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인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일제의 견고한 국경방어진을 뚫고 국내에 진출하여 대승리를 거둔 소식에 접한 려운형은 너무도 감격하여 그날 저녁 친지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승을 축하했고 《조선중앙일보》에 특별보도로 이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튿날에는 택시를 세내여 보천보에 가서 불타버린 일제의 기관들을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였으며 백두산에까지 올라가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려운형에 대한 일제의 전향작전은 더욱 심해져 어느때에는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로 추천하겠다고 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총독 미

나미가 직접 자기의 비서를 보내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였다.

1942년 4월 일제는 시국문제를 협의한다는 구실로 려운형을 불러 협력을 강요해나섰다. 이 일은 관록있고 조선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려운형을 어떻게 하나 돌려세워 저들의 식민지정책실행에 써먹으려는 왜놈들의 책략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에 대처하여 려운형은 경기도 양주군 산골인 봉안리와 고향 양평군 룡문산의 인적드문 곳으로 피난해있기도 했다.

그는 고향에 내려가 비밀리에 반일동지들을 규합했고 1944년에는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였으며 고향인 경기도 양평일대의 농민들을 기본으로 하여 농민동맹도 조직하였다.

언제나 백두산을 우러르며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련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던 려운형은 이 시기에 백두산으로 련락원도 파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의 반일활동을 오래전부터 알고계시였으며 일제의 박해속에서도 민족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그를 언제나 잊지 않고계시였다. 그래서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실 때에는 그를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내세우기도 하시였고 그가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반일단체를 내온것에 대하여 과시 려운형다운 배짱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려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내온 다음 인차 나에게도 사람을 보내고 조선독립동맹에도 련락원을 파견하였다고, 아쉽게도 그가 보낸 련락원은 우리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려운형의 련락원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것은 우리가 그 당시 쏘련의 훈련기지에서 활동하였기때문이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려운형이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각방으로 애를 쓴것처럼 우리도 려운형과의 합작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려운형은 건국동맹안에 군사위원회를 내오고 무장투쟁으로 일제의 배후를 교란시키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이 계획은 우리가 지향하고있던 전민항쟁로선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고 하시였다.

이처럼 려운형의 마음속에는 이때 벌써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만이 전조선의 유일한 령수이시라는 확신, 그이의 전사로 살려는 신념이 꽉 차있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을 따르는 그의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엿볼수 있는것이다.

해방정국의 와중에서

망국 40여년의 긴긴밤이 지새고 해방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

하나의 민족이 사는,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강토는 해방만세의 환호성으로 진감했다. 눈물은 슬픔의 말없는 말이라고 했지만 이때 우리 민족은 눈물은 기쁨의 말없는 말임을 새롭게 절감했다. 조선사람 누구나의 가슴에서나 기쁨의 샘줄기가 터져올라 두볼을 적시였다.

해방을 맞으며 《매일신보》 지면에는 《오! 고난의 밤은 가고 엄숙한 민족의 아침은 밝았다. 우리들의 하늘,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신성한 국토—오! 우리 사랑하는 3천만 형제자매들아!》라는 글이 실리여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진 민족의 환희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당시 《매일신보》는 려운형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는데 그가 호외특보(조선독립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은것) 몇만부를 인쇄하여 뿌릴것을 지시하여 8월 15일에 서울바닥을 덮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방의 환희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외세에 의해 두

부분으로 갈라진 우리 조국의 남쪽땅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대신 미군정통치라는 간판바꿈으로 새로운 외세의 지배를 받는 비극적사태에 놓이게 되였다.

남조선에서는 혼란된 정국과 사회적무질서속에서 매일같이 새 정당, 새 단체가 속출되고 입개나 놀리는 사람은 저마다 애국자로, 정치가로 자처하면서 좌파, 우파, 중도파요 하는 무정부주의적인 파벌세상으로 화했다.

해방천지를 만난 민심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로 으뜸의 명망을 지니신 **김일성**장군님께로 쏠리는데 남조선의 각양각색의 정객들과 사회운동자들은 저저마다 자파의 세력확대와 집권욕실현에 몰두하였다.

이런 가운데 려운형은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결성하고 남조선정계에 등장했다.

건준결성의 목적은 치안을 유지하고 건국에 필요한 힘과 기구 등을 잘 보존하고 육성하여 새로 탄생되는 국가를 되도록 건전하게 건설하자는것이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직후의 공백기에 남조선에서 준정권적기관으로서의 자치능력을 발휘하였다.

초기의 건준은 좌우익인사를 고루 포섭해 좌우합작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려운형이 좌우합작에 집념했던것은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았기때문이였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도 중국에서처럼 좌우합작이 성사될수 있을것이

라고 믿었던것이다.

그러나 건준의 기구와 영향력이 커감에 따라 계파간 리해관계가 드러나면서 주도권을 둘러싼 내분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분으로 려운형이 의도한 좌우합작의 의미는 빛을 잃게 되였으며 건준은 발족한지 얼마 안되여 해체되였다.

려운형은 그해 10월 조선인민당을 조직하고 당수로 되였다.

한편 미국은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려운형을 저들에게 끌어당기기 위해 그를 회유하려고 애썼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소위 《국가고문위원회》라는것을 설립하면서 려운형을 고문으로 내정하려고 하였다. 고문으로 임명된자들중 대다수가 악명높은 친일파들이였다. 그는 고문직을 즉석에서 거절하였다.

이번에는 미군정장관 아놀드가 려운형에게 미군정청의 고문이 되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때 려운형은 《그대가 나의 고문이 되여야 옳은 일이다. 내가 그대의 고문이 되는것은 주객이 뒤집힌 일이다.》라고 하며 고문의 취임을 거절하였으며 친일파들을 고문으로 임명한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극심한 우롱이며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매국배족적인 죄행을 폭로하는 《배신자와 애국자》라는 소책자를 써냈다.

한편 일제의 패망과 함께 목을 움츠리고있던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머리를 쳐들고있었고 부르죠아민주주의길

로 가야 한다느니,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느니, 구황실을 복귀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이른바 《정객》들의 목소리가 남조선인민들의 의식을 흐리게 하고있었다.

여기에 남조선의 민주세력의 단합을 방해하고 북으로 향하는 민심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도 더욱 우심해졌다.

이런 혼탁되고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려운형이 흔들리지 않고 진행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결성사업이였다.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무어진 조직이였다.

조국해방의 위업이 성취되자 북조선의 인민들은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뭇고 민족의 태양, 해방의 은인을 가장 성대히 환영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여기에는 당시 이름있는 정계, 사회계, 학계 등 각계층 인사들이 망라되였다.

남조선에서도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의 관심속에 려운형, 홍명희, 허헌, 최원택, 백남운, 최일천 등 명망있는 인사들이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당시 서울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여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며 개선연설을 하시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대강당에서 전국농민조합총련맹결성대회가 진행되였는데 전농의 선전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긴급동의로 민족의 은인 **김일성**장군님께 감사편지를 올릴것과 각계 단체와의 공동주최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그의 제의는 열광속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축사를 한 려운형을 비롯한 명망있는 인사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서울에 모시고싶어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신속히 내오기로 하였다.

사실 김구를 위시로 하는 림정계요인들이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사업에 어떤 립장을 취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남조선정계의 초점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경교장을 찾아가 김구를 비롯한 림정계인사들을 만났다.

김구를 비롯한 림정계인사들은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사업에 지지를 표시했다.

이미 해방전부터 조선군대를 무어 백두산에서 강대한 일본군과 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매혹과 신뢰의 정을 안고있던 김구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뭇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들의 소행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심정이자 림정요인들의 한결같은 심

정 그대로이다!》라고 흥분해서 말했다.

당황망조해난것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였다. 이자는 려운형을 불러 리승만과 손잡고 미국을 도와달라,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을 그만두어달라고 설복해나섰다.

그러나 려운형에게는 그런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았다.

드디여 1945년 12월 15일 서울에서는 23개 정당, 단체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해방직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국이 조성되던 남조선에서 이렇듯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된것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해방조선의 최고령수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가려는 남녘민심의 일치한 반영이였다.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지도성원들은 당시 남조선의 복잡하고 엄혹한 정국을 바로잡으실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려운형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는 편지에서 미군정의 실시로 어지러워진 남조선정세를 개탄하면서 이것을 수습하실분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뿐이시므로 하루빨리 그이께서 서울에 오시여 혼란된 정세를 수습하시고 나라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평양으로 갈 의

향을 표명하면서 그이께서 만나주실것을 간절히 청원하였다.

사실 려운형은 해방후 애국의 일념을 안고 건국준비위원회도 내오고 인민당도 창당하였지만 소경 집짓는 격이였다. 그때 남조선에 진보적정당, 단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의 민족리간책동과 종파분자들의 파쟁바람에 향방없이 저마끔 제나름이였다.

려운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미국의 식민지정책과 민주력량이 사분오렬되는 복잡한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민족대단합의 길을 찾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올리였고 자기를 만나주실것을 절절히 요청하였던것이다.

1946년초 려운형은 날개가 돋친듯 가벼운 마음으로 북행길에 나섰다.

려운형이 평양에 찾아간다는것은 미군정과 리승만역도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그의 일거일동에 눈초리를 돌리고있는 당시의 정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38°선에 대한 경계가 심해져 그것을 넘어선다는것은 생명의 위험도 무릅써야 하는것이였다.

그렇지만 해방전부터 민족의 은인으로, 태양으로 받들어모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그에게는 반동들의 방해책동도, 미국이 그어놓은 38°선도 장애로 될수 없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선을 헤치고 추운 겨울에 서울을 떠나 평양에 온 려운형을 뜨겁게 맞아주시였다.

려운형이 그후에도 늘 잊지 못해한 그날은 1946년 2월 11일이였다.

려운형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영명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과거 산에서 일제와 싸우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려운형을 만나고싶으시였다.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실 때에도 그와의 련계를 가지려고 공작원을 파견하신적도 있었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성사시킬수 없었던것이였다.

그런데 그처럼 만나고싶으셨던 그가 찾아온것이다.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너그러우신 인품에 끌린 려운형은 어려움도 잊고 그간 남조선에서 겪은 고충과 애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서서 자기의 주장을 웨치고있는데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그이께서 밝혀주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청을 쾌히 받아들이시여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시 조선이 나아갈 길을 두고 남조선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식《민주주의》간판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가 나아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식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조선사람에게는 미국옷도 맞지 않고 쏘련옷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옷을 입을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선생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장기간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기때문에 해방이 되였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악독한 일제잔재와 봉건잔재가 그대로 뿌리깊이 남아있다고,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완전독립도,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이룩할수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혁명의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민주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조선식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게 하며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라고, 우리 인민은 오직 이 길을 따라 나아가야만 나라의 완전자주독립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려운형은 《조선식옷》, 《조선식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쏘련식이냐 미국식이냐 하던 그때에 단호히 그것을 부정하시고 조선식을 들고나오신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배짱, 담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려운형은 조선사람은 조선식옷을 입어야 하듯이 조선민족이 나아갈 길도 조선식의 진로가 되여야 한다는 주체리념을 모르고 살아왔다.

어둠속을 헤매인 사람일수록 해빛의 귀중함을 더 잘 느낀다고 하였듯이 해방정국의 혼탁된 정세속에서 방황하던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서 세계를 풍미하던 기성의 사상과 리념에 종말을 알리는 민족자주사상의 힘찬 맥박을 느끼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이젠 점심식사하러 가자고 하시였다.

려운형은 따라일어서며 어데로 가시려는가고 물었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가기는 어델 가겠는가, 기별도 없이 왔으니 집에 가서 조밥이나 같이 들자고 하시였다.

초면인 자기를 이토록 허물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너그러우신 풍모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며 려운형은 혹시 국수집에라도 보내면 어찌나 했노라고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근하신 어조로 국수집에는 왜 가겠는가고, 국수집에 가면 더 맛있는것이 있겠지만 우리 집에 가서 된장국이라도 같이 들자고 하시였다.

허물없는 사이에만 이루어질수 있는 일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한 애국자에게 뜨거운 정을 주시였는데 그것은 그대로 허식과 가식을 모르는 믿음이고 사랑이였다.

려운형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자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 가자 항일의 녀장군으로 명망높으신 김정숙녀사의 소탈하신 성품과 화기에 넘친 가정적분위기에 휩싸여 마치 자기 집에 온것처럼 저고리를 활활 벗어놓고 마시지 않던 술도 들면서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끊었던 술을 40년만에 처음으로 마셨다고 하면서 꿈속에서만 그리던 장군님을 만나뵈온 오늘은 자기가 세상에 다시 태여난 날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서 그는 미국에 기대를 걸고 독립청원서를 써서 빠리강화회의에 보낸 일도, 길 잃고 헤매는 고아마냥 독립의 푸른 꿈을 안고 동서방의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뛰여다닌 일도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물도 많고 과실도 많은 그의 과거를 탓할 대신 모진 괴로움과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민족적지조를 지켰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 여생을 값있게 바칠수 있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이 겪고있는 여러가지 고충을 리해해주시고나서 조선혁명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큰 도량을 가지고 분렬이 아니라 단결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그를 고무해주시였으며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정한 길이 있고 민족통일과 번영의 지름길이 있음을 몽양 려운형은 그이를 처음으로 만나뵈온 그날에 벌써 페부로 절감했다.

가슴속에 고패치는 매혹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며 려운형은 청춘을 다시 찾은 기분이라고, 오늘부터 독립운동을 새로 시작하겠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장군님말씀을 들으니 답답하던 가슴이 후련해지고 우

리 조선이 나아갈 길이 환하게 내다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남조선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의 이름있는 정치가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만 장군님 같으신분을 만나뵙기는 처음입니다. 겉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조선에 대통운이 텄습니다.》

망국민의 설움을 안고 꿈에도 해가 그리워 자기의 호를 몽양이라고 했던 려운형,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 평생소원을 이루었던 그날에는 아마도 꿈에도 잊을수 없는 민족의 태양만을 따르는 전사로 변함없이 살 맹세를 담아 자기의 호를 다시 지을 결심을 했는지도 모른다.

서울에 돌아간 려운형은 로당익장의 정열로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로선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는 서울 그리스도교회관에서 있은 시국강연회에서 한 《청년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연설에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국로선을 해설하였다. 또한 자기 집에 찾아온 많은 청년들과 인사들에게 그이의 위대함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뛰여난 인품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려운형선생이 나를 만나고 서울에 나가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내가 평양에 가서 만나본 김일성장군은 당년 34살의

청년장군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너무 좋아 만세를 부르고 모자를 벗어 올려 던지면서 굉장히 환호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왜 김일성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따르는가, 그것은 김일성장군이 백두산이 낳은 조선의 명장이시고 일제놈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투쟁을 벌려 조국을 광복한 민족의 영웅이시기때문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 의병이나 독립군이 있었지만 김일성장군이 거느린 군대처럼 무장투쟁으로 왜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해방한 그런 군대가 어디 있었는가, 진수성찬을 차려 장군님께 대접하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겠는데 우리 3천만 백성들이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있는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성세대가 못다한 일을 당신들, 청년들이 맡아 해달라고 하면서 김일성장군이 내놓으신 건국로선이야말로 자기의 신념이며 오직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고 조국이 나아갈 진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방전부터 민족의 령도자로 끝없이 흠모하고 숭배하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받아안은 려운형은 남조선정계에서 무시할수 없는 발언권을 가지게 되였고 그의 정치적영향력은 날로 높아갔다.

민중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려운형의 인기에 놀란 미군정과 친미매국노들은 려운형이 평양에 다녀왔다고 비난하면서 압력을 가했다.

《내 집에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내가 웃방으로 가건 아래방으로 가건 왜 간섭이요. 나는 내 집안일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왔소.》

이것은 평양에 갔다온 일을 두고 간섭해나서는자들에게 려운형이 배심당당하게 한 말이다.

《내 집안일》,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확고한 민족자주의 리념에 매혹된 려운형이 그 심원한 뜻을 자기의 신념으로 간직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하기에 어느날 려운형을 찾은 하지가 미국과 손잡고 일하자며 회유했을 때에도 그는 우리 조선사람은 조선옷을 입어야지 미국옷을 입어도 안 맞고 쏘련옷을 입어도 안 맞는다고,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의 회유를 뿌리쳤다.

미군정당국이 두 딸을 미국에 류학보내라고 회유했으나 려운형은 두 딸을 평양으로 떠나보냈다.

이것은 60평생 우여곡절속에서 그렇게도 그리웠던 태양의 빛을 찾은 려운형이 자신뿐아니라 자식들의 운명을 수령님께 맡기고 그이의 전사로 살려는 투철한 신념의 재확인이였다.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뵙던 자리에서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북에 보내여 키웠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었다.

그의 소청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것을 왜 벌

써 이야기하지 않았는가고 하시면서 그애들을 평양으로,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내가 우리 집에 함께 데리고있으면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그가 보낸 두 딸을 직접 댁에 두고 공부시키시였으며 외국류학도 보내주시고 중요한 초소들에 세워주시였다.

려운형은 생애에 5남4녀의 자식을 두었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던 그 시절에, 더구나 선의보다는 악의가 뒤따르던 독립운동자의 신분으로서는 너무도 많은 자식이 아닐수 없다. 그리하여 그의 가정은 자식을 보는 기쁨보다 몇갑절이나 더 큰 상실의 아픔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자식들중에 연구와 원구를 비롯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형제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비명에 세상을 떠났다.

하기에 언제인가 수령님을 만나뵈웠을 때 려연구는 《우리 형제 아홉남매중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형제들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제명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진정어린 이 말에 곡절많은 길을 걸어온 려씨가문을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생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숭고한 의리속에 영생하는 삶

두 딸을 평양으로 보낸 후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과 민족통일전선로선을 받들고 민주세력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해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한편 쏘미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로 들어가자 리승만역도는 드디여 《단독정부》수립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미국과 리승만도당의 민족분렬기도를 파탄시키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하며 여기서 급선무는 애국적정당들이 하나로 합당하는것이라고 본 려운형은 남조선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의 합당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의 공산당안에서는 두 파벌간에 의견상이가 생기고 신민당과 인민당안에서도 반대파가 대립하였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미 있는 당들마저 깨질 위험이 있었다.

복잡하고 험악한 남조선정세와 관련하여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그해 9월말 또다시 38° 선을 넘어 평양으로 찾아왔다.

그는 그사이 남조선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았다.

서울로 돌아간 려운형은 각당 당수들과 만나 3당합당을 하루빨리 실현할 대책을 토론했다. 한편 인민당원들과 신민당원들속에서 합당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근기있게 해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였다.

마침내 려운형과 허헌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남로당창립대회가 열리였으며 남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로동당이 창립되였다.

하지만 남로당내의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통일적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의나 할수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외롭지 않았고 자신심과 열의에 충만되여있던 려운형이였기에 그는 남조선의 광범한 중간계층을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미국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로 좌절을 모르고 남조선민주세력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려운형의 활동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된 친미반동분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를 암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하기에 려운형의 신상에는 항상 테로의 검은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젊어서 환난을 많이 겪으면 늙어서 풍랑을 겁내지 않는다고 하더니 려운형은 신상의 위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

았다. 해방후 2년도 안되여 그는 여러차례의 크고작은 테로를 당했다. 당시 측근들은 테로정보를 접하고 그에게 몸조심할것을 여러차례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측근들의 경고를 매번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1947년 7월 19일 반동분자들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타리에서 테로를 당하여 희생되였다.

그때 려운형은 최후의 숨을 몰아쉬며 《조선…》이라고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려운형이 눈을 감으면서도 불러보고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조선, 그 조선은 바로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통일된 조국이였다.

려운형의 암살은 남조선에 친미정권을 조작하고 식민지지배정책을 실시하려는 미국과 그와 야합한 친미독재세력의 음모의 산물이였다.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괴로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이 죽다니, 죽어도 조국통일을 보고 죽겠다던 선생이 벌써 가다니. …》 하시며 려운형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였다.

려운형이 쓰러졌을 때 수십만 남녀인민들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왜놈도 못했거늘 어찌 선생을 죽였느냐.》, 《선생의 피

와 함께 인민은 살아있다.》, 《아! 우리의 지도자 몽양선생, 인민의 벗, 혁명에 흘리신 거룩한 피는 여기 인민의 가슴에 뭉쳐있나니… 반동의 총탄에 쓰러진 몽양 려운형선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노래! 몽양의 유해를 둘러싸고 젊은 청년들이 흐느껴운다. 고이 잠드시라. 우리의 몽양선생. 우리는 기어코 원쑤 갚으오리다. 몽양선생 추모의 노래는 오고가는 사람을 슬프게 한다.》…

장례식은 8월 3일에 서울운동장에서 인민장으로 성대하게 거행되였다. 서울시내전체가 애도의 분위기에 잠겼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3.1인민봉기를 촉발한 고종의 장례식보다 려운형의 장례식이 더 성대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에서도 대규모의 중앙추모회를 조직해주시였으며 후날 회의석상이나 해외인사들을 만나신 자리에서도 그의 통일애국행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며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에게 못다 주신 사랑과 은정을 그의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려운형선생은 조국통일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 통일애국의 길에서 빛나게 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려운형이 희생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1991년 11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의 자녀들을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면서 나는 동무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한다고, 동무들도 나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몇달전부터 동무네 4형제를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시간을 내지 못하였다고, 어제 저녁에 한 일군에게 려연구가 언제 서울로 나가는가고 물어보니 25일경에 나간다고 하기에 오늘 동무들을 오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려운형의 딸 려연구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려연구에게 서울에 나가면 아버지묘소에 가보아야 하겠다고, 내가 려운형선생의 묘에 나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인 11월 25일 서울의 수유리 우이동에 있는 려운형의 묘소앞에는 많은 사람들속에 둘러싸인 가운데 한 녀성이 눈물에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채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그가 바로 40여년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은 려운형의 딸 려연구였다.

묘소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날 려연구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반동들의 테로에 희생된 후에도 령전에 달려올수 없었던 이 딸이 40여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아버지의 묘소에 섰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참된 뜻이 있어 우리의 **김일성**장군님과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를 민족의 영웅으로, 스승으로 모시였고 그 길에서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기에 영생하고계신다는 참으로 감동적인 추모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화환과 려연구의 말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려운형과 그 후대들이 안긴 은혜로운 품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되였다.

하기에 그날 남조선의 려운형추모회 회장은 《묘소에 따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준비를 하였지만 이렇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화환이, 그것도 생화가 와닿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떻게 50년가까이 정사를 보시게 되였는가 하는 의문이 단번에 풀립니다.》라고 감동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인덕은 의리속에 더욱 빛나는 가장 숭고한 인덕이며 그 뜨거운 인간애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

도 변함이 없는 사랑중의 사랑이다.

그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였기에 몽양 려운형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값높은 삶을 살수 있었고 오늘도 온 겨레가 잊지 못하는 통일애국인사로 영생하고있는것이다.

허 헌편

불의에 맞선 량심적인 변호사 ………………………… 104

평양에 찾아온 사연 ………………………………… 120

절세의 위인의 품에 안겨 ……………………………… 133

마지막당부 …………………………………………… 143

경력

- 1885년 7월 6일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출생.
- 1908년 8월 변호사개업.
- 1911년 3월 서울 보성학교 교원, 그후 보성전문학교 교장.
- 1927년 2월 신간회결성식에 참가.
-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1946년 2월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
- 1948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단 성원,
- 1951년 8월 17일 사망.
- 1990년 조국통일상 수상.

나라의 독립과 갈라진 겨레의 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친 애국렬사들속에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는 변호사로, 반일운동가로, 해방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당 당수, 남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생의 말년에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단 성원,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으로 사업한 허헌도 있다.

그의 한생을 총화지어보면 그는 량심적이고 강직한 법률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대의를 위해 투신한 의로운 정치가, 민족의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같이 산 충직하고 신의있는 인간이라고 할수 있다.

소나무의 억셈은 추위로 알고 애국자는 조국이 위험할 때 알수 있다고 하였다.

칠칠야밤이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와 민족의 분렬이 영구화되던 엄혹한 시기의 허헌의 대바르고 량심적인 애국의 삶은 오랜 세월 분렬의 암흑속에 사는 우리 겨레에게 어느 길이 진짜 애국에 사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불의에 맞선 량심적인 변호사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여난 풍치로 하여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산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여 지어졌다고 한다. 1885년 7월 이처럼 경치좋은 칠보산이 자리잡고있는 명천군의 어느 한 산골마을에서 후에 우리 민족사에 이름을 남긴 허헌(호 긍인)이 태여났다.

비록 산천은 아름답고 수려했어도 어려서 량부모를 다 잃고 어린 동생도 돌봐야 하는 허헌의 유년시절은 참으로 고달픈 나날이였다. 고생속에 날과 달이 흐를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선친의 뜻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갔다.

마침내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의 도움으로 19세기 말엽에 서울에 간 그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근대교육기관인 관립재동소학교 고등과를 나온데 이어 한성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 나날은 비단 학문의 폭만 넓혀가는 나날이 아니였다. 애국적인 젊은 지식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해 벌리는

렬강들사이의 암투에 대하여 상세히 알게 되였다.

허헌의 눈길은 법리론, 그중에서도 나라들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국제법에 쏠리였다. 국제법을 알아야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들의 불공정성, 불법성을 까밝힐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자면 먼저 외국어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한성외국어학교에서 낮에는 도이췰란드어를, 밤에는 일본어와 영어를 자체로 공부하였다.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규장각 주사로 일하였으나 선비들이 모여앉아 유학교리나 외우면서 허송세월하는데 환멸을 느끼고 이곳을 뛰쳐나와 보성전문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이곳을 졸업한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법학을 공부하였다.

어느날 그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리준렬사가 조선독립을 절규하며 배를 갈라 자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는 이미전부터 리준을 애국선배로 무척 존경하며 따랐었다. 리준도 애국심이 강한 청년들이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가야 한다면서 년령의 차이를 초월하여 허헌을 각근히 대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연고로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리준을 비롯한 밀사들이 파견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고종은 헤그에서 열린 만국평화

회의에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각국 대표들의 랭담한 반응으로 하여 회의앞으로 보내는 황제의 편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으며 렬강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밀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걸음마다 좌절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의 성공을 일구월심 바라고있던 허헌은 리준의 비참한 죽음앞에서 가슴을 쳤다. 그는 어떻게 하나 선렬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의 길을 걸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법률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민족이 국내외적으로 불행한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허헌은 법률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결심밑에 법률을 전공하였고 법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다.

물론 당시의 법이라는것은 일본이 저들의 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것들이였다. 그리고 국제법이라는것도 렬강들이 약소민족들을 희생시켜 저들의 리익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들이였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왜놈들과 당당히 맞서싸우려면 그들이 제정해놓은 법률상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법률과 국제법

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대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세우고 법률을 공부하였다.

시간은 인간이 소비하는것중 가장 가치있는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는 밤에는 달빛을 등불삼아 책을 읽었으며 바늘로 발바닥을 찔러 졸음을 쫓아가면서 공부하였다. 신발을 살 돈이 없어 대학으로 오가는 길에서는 맨발로 다니였고 5전짜리 눅은 식사를 봉사하는 식당에 들리기 위해 매일 대학에서 숙소까지 곧추 오가지 못하고 5리나 되는 길을 에돌아 다녔다.

이와 함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별의별 일을 다하였다. 가정교사, 우유배달, 신문배달, 막로동…

그처럼 피타는 노력으로 그는 끝내 최우수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1908년 조선으로 돌아와 그해에 실시된 제1차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당당히 법정에 나서게 되였으며 실력으로 일본인법관들을 내려누르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무렵 조선의 사법재판제도는 이미 일본이 완전히 틀어쥐고있었다. 재판제도만 보더라도 재판정에서는 일본말만 쓰게 되여있었다. 피고가 반일적인 요소가 있는 조선사람이면 왜놈판사는 심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교수형에 처한다.》고 일본말로 언도해버리군 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조선말로 통역하는것으로 재판이 끝나고 즉시 형이 집행되는 판이였다.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변호사로서 법치를 념불처럼 외우는

왜놈들의 무지막지한 처사에 분격을 금치 못한 허헌은 어느 날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조선사람에 대한 변호를 하다가 왜놈재판장에게 황당무계한 판결을 취소하라고 책상을 치며 큰소리로 항의하여 재판이 중지된적도 있었다.

이 일로 하여 그는 변호사개업을 한지 불과 다섯달만에 징계에 회부되여 변호사등록이 취소된적도 있었다.

인간성이 없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없다고 하였다. 평소부터 억압받고 박해받는 인민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안고있던 허헌이 탐관오리들의 부패행위를 폭로하고 무고한 변을 당하게 된 불쌍한 사람들의 리익을 지켜주기 위해 무료변호에 나섰던적이 얼마인지 모른다.

왜놈들을 등대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매국역적 송병준의 죄행을 까밝히고 재털이를 던지며 그자와 싸우던 일, 서울시내의 쌀값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보려던 왜놈상인들의 협잡행위와 이를 비호한 법부대신의 반민족적인 처사를 폭로규탄한 하미전사건, 왜놈들의 토지략탈책동으로 억울하게 경작권을 박탈당한 농민들을 변호해준 소유권분쟁들…

특히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애국자들을 위한 변호라면 리념이나 주의주장에는 아랑곳없이 솔선 말아나서 수십, 수백리도 멀다 않고 달려가군 했다.

1919년 3.1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였다. 민족대표로 선정되여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던 33명을 비롯하여 수십여명의

《피고》들이 야만적인 고문끝에 살인재판정에 끌려나왔다.

허헌은 재판이 시작되자 량심적인 변호사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변호인으로 나섰으며 왜놈법관들이 작성한 30여권에 수만매에 달하는 심리기록들을 깐깐히 따져보았다.

그 기록들에서 허점을 찾아낸 그는 론리정연한 법리적근거를 가지고 자주독립의지를 내외에 천명한것은 결코 죄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모두 무죄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제아무리 간교한 왜놈들일지라도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과 허헌이 제기한 법리상의 문제점을 무시할수 없었던 놈들은 끝내 공소불수리(공소기각)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자 왜놈검사는 복도에서 재판장의 멱살을 틀어쥐고 욕설을 퍼붓는 희비극까지 연출했다. 그후 일제는 고등법원의 실책이라고 통탄하며 법원장이하 5명의 판사를 교체하고 재판장은 좌천시켰다고 한다.

일명 《공소불수리신립사건》이라고 부른 이 사건은 당시 국내는 물론 일본의 언론계와 법조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공소불수리신립》이란 재판소에 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소송활동을 위법으로 몰아 소송을 취소하도록 재판장에게 항의하는 변호사의 법률상권리라고 한다.

이때의 변호는 허헌이 대학졸업후 변호사로서 정치범에 대

한 첫 변호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게 되였다.

그는 그후에도 침식도 잊고 고심하며 려운형을 비롯한 독립애국인사들을 악독하고 교활한 왜놈법관들의 마수에서 구원하기 위해 치렬한 법정싸움을 벌리군 하였다.

1950년대말에 허헌과 대학동창생이였던 일본법률가협회 회장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허헌의 묘소를 찾고 그의 딸 허정숙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허헌의 명성은 대단하였다. 허헌은 일본법을 일본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있었다. 일본법의 약점을 알고 법정에서 변호를 잘하였기때문에 늘 이겼다.》

당시 허헌의 명성과 관련한 이런 일화도 있다.

한번은 그가 변호사들과 같이 마차를 타고 산길을 가다가 비적단에 걸려들었는데 그들은 막무가내로 독립군자금을 내라고 강박하였다. 그때 허헌은 있는 돈을 다 털어주고 명함장을 보여주었는데 그처럼 횡포하던 비적들이 대뜸 머리를 수그리며 애국지사를 몰라보았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길안내까지 해주었다는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르죠아민족주의가 더는 독립운동의 기치로 될수 없다는것을 실감한 선각자들속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운동에 눈길을 돌리였다. 허헌은 앞

선 시대사조를 신봉하며 반일독립투쟁의 길에 뛰여든 그들을 지지하고 도와주었다.

공산주의리념을 리해하고 그에 공감하여서가 아니였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면 그 어떤 주의든 환영한다는 립장에서였다.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실한 벗을 안다고 허헌은 김책이 공산주의운동관계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였을 때 자진하여 변호를 맡아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책과 허헌의 연고관계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서술하시였다.

《허헌선생이 김책의 변호를 서준것은 순수한 애국심의 표현이였습니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조선사람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것이 가슴아프고 억울해서 무료변호를 서준것입니다. 동정심, 련대감, 애국선배로서의 의리… 이런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러고보면 허헌선생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원래 김책은 변호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붙일만 한 돈도 없었고 또 변호를 받고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허헌은 자진해서 무료로 그의 변호를 담당하였다. 그는 재판정에서 많은 혁명가들과 독립운동자들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형량을 덜게 하거나 무죄가 되게 하였다.

그는 재판정에서 왜놈검사가 론고할 때 김책이 공산당이니

대일본제국을 전복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치안유지법》에 걸어 중형을 선고하려고 하자 조선사람이 제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데 공산당이라 해서 무슨 죄가 있겠는가, 량심있는 조선사람은 다 조선이 독립할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김책이 하등의 죄가 없다는것을 주장하였다.

한번은 허헌과 왜놈검사사이에 김책의 형량을 놓고 격렬한 론전이 벌어졌는데 그놈은 죠센징인 주제에 법리고 뭐고 따질게 있는가고 하면서 오만하게 지껄여댔다. 격노한 허헌은 조선사람이 다 죽은줄 아느냐고 소리치면서 그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고 한다.

그뿐아니라 허헌은 김책이 옥중생활을 할 때 면회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를 위해 차입도 해주고 감옥에서 나올 때 옷도 해들여보냈다.

그때에는 누구도 혁명가들과 가까이 접촉하기를 두려워하던 때였지만 허헌은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혁명가 김책에게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출옥한 후에는 감옥에서 쇠약해진 김책의 몸을 보양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으며 다시 간도로 떠날 때에는 귀중한 물건을 아낌없이 저당잡혀 마련한 돈을 려비로 보태주었다.

당시 허헌은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때인지라 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재에 있던 법전들을 내다팔게 하였다.

딸이 그 귀한 책들을 팔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자 허헌은 이제는 그런 법전이나 붙들고있을 때가 아니니 아까워말고 내다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그가 법리로 일제와 맞서싸우는것으로써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던 때였다.

허헌은 변호사로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독립할 방도를 찾기 위해 몸부림친 애국지사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의 령도권쟁탈로 인한 파벌싸움에 환멸을 느낀 허헌은 독립의 방도를 찾으려는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일본과 미국에도 가서 그 나라의 정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의 중진인사들도 만나보았다.

미국체류시에는 백악관에서 미국대통령을 만나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력설하였으나 랭대를 받았고 미국의 정객들도 만나보았으나 그들중 단 한사람도 조선인민을 지지동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그는 아일랜드, 영국, 네데를란드 등을 돌아보고 벨지끄에서 열리는 국제약소민족대회에도 참가하였다. 기자의 신분으로 회의에 참가했던 그는 여러 나라들에서 온 대표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을 만나보았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국제무대에서 폭로단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

의 투쟁을 여러 나라 인사들과 법률가들속에서 여론화시키고 지지와 성원을 모색하려던 그의 노력은 응당한 화답을 받지 못하였다.

이어 대회장에서 만났던 일본공산당 지도자인 가다야마 센의 권유를 받고 모스크바에 간 허헌은 근로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 현실을 보고 나라를 찾으려면 진정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였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회견시에 《이미 변호사업을 그만두고 민족적, 사회적인 큰일에 전력하고싶은 생각이 불붙는듯 하다.》고 한것은 그의 이러한 결론의 반증이였다.

허헌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변호사로서 아무리 무고한 사람들을 변호해보았댔자 그것으로는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빠진 조선민족을 구원할수 없음을 절감하였으며 변호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1920년대 중엽이후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두개의 세력이 존재하고있었다. 민족해방과 민족자주권의 부활에 동일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온 리상재, 홍명희, 허헌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에 의해 1927년 2월에 서울에서 신간회가 창립되였다.

민족을 대표한다고 말할수 있는 량대세력의 공동전선이 실

현됨으로써 신간회는 발족한 순간부터 전민족을 대표하는 거족적인 유일조직으로 되였다. 이 단체의 창립취지는 그 발기인들이 《고목신간》이라는 뜻에서 신간회라고 한 명칭자체에 잘 반영되여있다. 《고목신간》이란 오랜 나무에서 새 줄기가 자란다는 뜻이다.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신간회는 새로운 기초우에서의 민족력량의 총집결을 지향하였다.

신간회운동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각성을 촉진하고 민족적단결을 공고히 하며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 강령의 내용도 혁신적이였으며 회원들의 구성도 다양하고 광폭적이였다.

초대회장은 청년련합회 회장, 교육협회 회장, 조선일보사 사장 등을 하면서 민족주의운동에 헌신하던 리상재였다. 그는 병으로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당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등 좌우익정치세력들모두의 인정을 받는 존재였으므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였다. 리상재가 병으로 인차 사망한 후 허헌이 신간회 제2대 회장으로 되였다.

수만명의 회원을 통솔하는 신간회의 회장이 된 허헌은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민족의 리익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민족의 얼을 일깨우기 위해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으며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일제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허헌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반일애국력량을 단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것

을 두려워한 일제의 파괴공작에 의해 신간회는 나온지 4년만에 해체되고말았다.

허헌은 이때 적들의 암해책동과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조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만 한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 없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했다고 한다.

한편 허헌은 교육계와 언론계에도 관여하여 인민들의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자신이 직접 교직에 종사하기도 했으며 학교를 건립하는데 재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고 《동아일보》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반일애국인사인 그에게는 항상 요시찰인이라는 딱지와 함께 감옥생활이 따라다녔다. 1932년 1월 병든 몸을 끌고 서대문형무소를 나서고보니 가정형편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도였다.

그때 그가 저들에게 협력하면 변호사로서의 생활은 물론 병도 치료해주겠다는 왜놈들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누릴수도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민족적량심을 지닌 허헌은 왜놈들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때 《독립》이니 《투쟁》이니 하며 돌아치던자들이 감옥신세를 한번 지고는 일제의 위협과 회유에 넘어가 전향서에 지장을 찍을 때 불의에 대한 타협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던 허헌은 왜놈들이 유혹할수록 가슴속에 간직된 반일애국의 뜻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였다.

그는 자기의 딸(허정숙)이 한갖 온실의 꽃처럼 자라는것을 원치 않았고 두 자식까지 있는 그를 반일애국의 길로 흔연히 떠나보냈다.

그는 항일유격대를 찾아갈 결심을 품은 딸이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기 저어하는것을 보며 어서 마음놓고 떠나거라, 조선의 뜻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아가는 길인데 거기에 무슨 주저가 있을수 있겠느냐, 네가 아들이였다면 벌써 오래전에 너를 총을 쥐고 왜놈들과 싸우러 떠나보냈을 내다, 하지만 네가 남자가 아니라 녀자이다보니 이래저래 마음을 써오다가 오늘에야 뒤늦게 결심을 내린것이니 여기 걱정일랑 말고 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떠나거라, 조선의 용사들이 항일의 총성을 높이 울릴 때마다 너도 잘 싸우고있겠거니 생각하겠다, 만주바람은 꽃바람이 아니다, 아무쪼록 몸조심해라, 나라가 독립되는 날 우리 서로 떳떳하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산천초목은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봄을 기다린다. 허헌은 딸에게 약속한대로 암흑의 세상에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떳떳하게 살았다.

그러던 그에게 1937년 6월의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그야말로 재생의 봄을 알리는 따스한 빛발이였다.

이제는 조선이 해방되게 되였다, 우리 조선에 그처럼 바라던 위인이 오셨다, 왜놈들이 쫓겨갈 날도 멀지 않았다

고 온 겨레가 가슴들먹이였다. 총대로 왜놈들을 쳐부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고 신출귀몰하신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쳤다.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재생의 은인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는것을 확신한 허헌은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자료들을 수집하여 인민들에게 소개선전하였으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과 만난 다음부터는 그와 련계를 맺고 반일투쟁을 하였다.

그는 일제의 패망을 앞둔 시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소식을 비롯하여 국내외정세자료들을 단파라지오를 통하여 입수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였다.

일제는 저들이 벌려놓은 침략전쟁의 형세가 기울어지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발광하였다. 처음에는 《단파라지오청취금지령》을 내리고 모든 단파수신기의 리용을 중지시키였으며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가지고있던 라지오까지 모조리 압수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국내외정세자료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던 선이 끊어지게 되자 허헌은 서울방송국에 있는 조선인기술자들의 도움으로 해외방송자료들을 입수하군 하였다.

일명 《단파라지오방송사건》으로 하여 그는 일제에게 또다시 체포투옥되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한번은 조선인형사가 고문하려고 허헌의 팔을 잡았을 때 그는 날쌔게 형사의 아래도리를 꽉 움켜잡고 《이놈, 너도 조선사람이냐?》라고 호통쳤다. 불시에 급소를 제압당한 그자는 《선생님, 다시는 이런짓을 안하겠습니다.》라고 죽는소리를 지르며 손이야 발이야 빌었다. 그후로는 다시 그놈이 나타나지 못했다.

감옥에 면회를 갔던 그의 안해의 회상에 의하면 허헌은 감옥안에서 야만적인 고문으로 페인이 되였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창씨개명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몹시 격분하여 아이들 이름을 절대로 일본식으로 고칠수 없다, 학교를 못 보내더라도 창씨개명을 절대로 못한다고 큰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허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일제로부터 해방되리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기에 백두산을 바라보며 꿋꿋이 지조를 지킬수 있었던것이다.

해방전에 《삼천리》잡지에는 허헌을 소개한 글과 함께 그가 쓴 자필이 실렸다.

《대의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큰뜻은 명예와 리익에 두지 않는다.》

그는 40여년의 그 암흑의 식민지시기에 자신의 이 신념대로 정의인, 량심인으로서의 지조를 지켜 살았고 해방후에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투사로서의 참된 삶을 살았다.

평양에 찾아온 사연

나라가 해방되였을 때 허헌은 감옥에서 당한 고문의 후과로 처가가 있는 황해도 삼천군 달천에서 병치료를 받고있었다. 그때 려운형으로부터 자기를 도와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사업을 해달라는 전갈이 왔다.

약한 신체는 정신을 약하게 한다고 하였지만 허헌은 려운형선생을 믿고 모든 지혜를 짜서 돕겠다고 하면서 병색이 짙은 몸을 끌고 나라가 해방된지 보름후에 서울로 가게 되였다.

서울에 온 허헌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하루밤 자고 일어나면 알지도 못할 정당, 단체들이 무수히 생겨났다. 애국자, 명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저마끔 당파를 무어가지고 세력다툼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민주건국을 리념으로 한다는 각이한 단체들도 서로 목청을 돋구어가며 사람들을 끌어당기고있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조성된 정세도 허헌의 마음을 무겁게 해주었다.

길 닦아놓으니 미친개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조선의 해방을 위해 피 한방울 흘리지 않은 미군은 일제가 패망하자 남조선

에 무혈입성하여 점령군행세를 하며 온갖 못된짓을 일삼았다.

40여년간 일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치떨리도록 억압당해온 조선인민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숙청이 소원이였지만 미국인들이 남조선에서 처음 실행한 일이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것을 기념하는 연회에서 왜놈들과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조국의 장래를 《해방군》과 론의하기 위해 찾아온 조선의 애국인사들을 문전박대하면서 쫓아낸것이였다.

트루맨은 《일시적으로 관직에 일본인들을 그대로 앉혀두는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봉사나 우리 점령군의 업무수행에 유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시기에는 그들의 기술적인 자질이 절대 필요하기때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미군정의 한 미군장교는 《군정의 조선인들은 극악한 부패와 음모를 대표하는자들이다. 우리가 남조선을 통치하기 위하여 고용하고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더러운 사업을 도와주었던 극우파들이다. 현재 남조선의 경찰들중에는 실제로 민족주의를 탄압하는데 매우 잔악했고 열성적이였기때문에 훈장을 받은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정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복잡한 속에서도 허헌은 이전처럼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인민대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친일분자들, 민족반역자들이 해방이

되자 정계의 전렬에 나서는것을 반대했으며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가 참여한것이 건국준비위원회였고 민주주의민족전선이였다.

탄압과 착취에 억눌리던 근로대중을 동정했고 독립운동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변호에 앞장섰기에 일찍부터 그는 민중들뿐아니라 이른바 좌우익정객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이였다. 하기에 각당, 각파들은 명성높은 허헌을 저들의 편에 세우려고 모지름을 썼다.

그무렵 미국은 려운형과 함께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허헌을 제편에 흡수하여 애국력량을 분렬시키려고 저들이 세우려는 친미정권의 요직도 권고하였고 미군정청에 불러들이여 회유와 기만, 위협을 했다.

한번은 하지가 허헌을 불렀다. 명망높은 허선생을 만나니 반갑다고 너스레를 떨던 하지는 감옥에서 얻은 병을 미군정에서 치료해주겠다고 하면서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고 리승만과 손잡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허헌선생과 같은분이 정계에 나서면 여러 계층의 지지를 받을것이다, 총리자리를 주겠노라고 회유하였다.

허헌은 《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리승만과 손잡아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는 허헌의 손

을 잡아 앉히면서 더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허헌은 하지에게 4가지 요구조건을 제기하였다.

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할것, 일본은 전패국이고 조선은 해방국이니 민주주의적발전을 도모할것, 인민위원회를 해산시킬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를 인정할것, 미군정은 정권에 간섭하지 말것.

하지는 이 4가지 요구조건을 다 거부하였다. 아니 하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였다.

하여 허헌과 하지와의 담화는 싸움으로 번져졌다. 영어를 잘하는 허헌이였지만 그는 조선말을 하고 하지는 영어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였다. 당시 하지의 통역관은 통역을 하다 나중에는 물러나고말았다고 한다.

그때 허헌은 종로구 효자동에서 살았는데 하지가 파견한 요원이 찾아와 리승만과 손잡을것을 또다시 권유하자 그를 거절하고 룡산구 청파동으로 이사해버리였다.

사실 그 당시 해방초기의 환희와 희망은 가뭇없이 사라져가고있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앞에서 사람들은 갈팡질팡하였다.

허헌도 해방전 법정투쟁을 벌릴 때나 신간회에서 활동할 때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간의 반목과 알륵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되리만큼 복잡한 정국앞에서 어떤 태도와 립장을 취해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해방된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던 허헌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평양으로 향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실분은 오직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우러르는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는 맏딸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의 고견을 받고싶은 마음에서 지체없이 평양으로 사람을 떠나보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자기의 맏딸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싸운줄로만 알고있던 허헌이였다.

그는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평양에 가서 맏딸이 귀국하였는지 알아보고 귀국했으면 자기의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평양에서는 딸의 행적을 찾을 길 없었다. 생사여부조차 묘연하였다.

중국 팔로군부대에서 정치일군으로 사업하고있던 허헌의 딸 허정숙은 연안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다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중국 관내에서 투쟁하고있던 조선혁명가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셨다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기쁨에 넘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안을 떠난 그는 간고한 행군을 거쳐 11월 중순에야 중국의 단동에 도착하였는

데 이때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였고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허헌은 편지에서 민족적량심을 끝까지 지키고 해방된 조국에서 너를 만나게 되여 기쁘다고, 남조선정세가 매우 복잡한데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를 타개하고 조선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어떤 가르치심을 주시였는지 알고싶다고 하였다.

평양에 도착한 후 허정숙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기회에 아버지의 편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허헌선생은 해방된 조국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할 분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편향없이 투쟁해나갈수 있도록 곧 편지를 써서 남조선정세를 잘 분석해주고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을 잘 알려주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미국놈들과 타협하지 않을것은 뻔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조건에서 그의 태도와 립장이 아주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아버지에게 파쟁분자들의 책동에 속아넘어가지 말라고 꼭 당부할데 대하여 이르시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동요없이 밀고나가리라는것을 믿는다고 하시였다.

허정숙은 그날중으로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내용을 편지에 그대로 옮겼다.

허헌은 딸이 보낸 편지를 받고 흥분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날이 감에 따라 점점 드러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화정책의 진면모, 반목과 질시로 좀처럼 단결을 이루지 못하는 애국적민주력량의 실태를 놓고 마음쓰던 허헌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편지를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정숙을 통하여 그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몸소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과거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지지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미군정에 의하여 새 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적인민들의 민주주의적활동이 심히 억제당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세력의 반민주주의적책동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남조선의 정치정세를 언급하신 다음 허헌이 그처럼 고심하던 문제 즉 해방된 오늘 우리 민족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이 력사적과업을 수행하려면 민주주의적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수립하려는 민주주의적정부는 인민대중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선생이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

들과 인민대중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없애며 민족자주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는다고, 량심이 있고 생각이 깊은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민족이 제정신을 가지고 새 조국을 건설하기를 원하고있다고,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있는 선생과 같은분들이 잘 활동한다면 광범한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교양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쓰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건국사업을 잘해나가려면 정당이나 신앙, 정치적리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단결하여야 하며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비록 정치적립장이 불철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애국적요소가 있으면 그들과 단결하여나가야 한다고, 공산주의자들이나 몇몇 애국적민주인사들의 힘만으로는 새 조국을 건설할수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며 민주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끝으로 그이께서는 어떤 기회에든지 선생과 만나고저 한다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온 겨레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의 크나큰 믿음이 담긴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허헌은 갈피를 잡을수 없게 뒤엉켰던 실마리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앞이 환히 트이는것만 같았다.

그는 즉시 남조선에서 애국적민주력량을 단합시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 려운형, 홍명희, 백남운, 리극로 등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손잡고 앞으로 내오게 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한편 이 시기에 남조선에서는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이 결성되였다.

명색은 통일전선조직체로 결성된 조직이였지만 파쟁군들의 종파적행위로 의장들과 부의장들이 따돌림까지 받다나니 민전내에서는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단결이 아니라 분렬, 분파가 더 성행하는 형편이였다.

더우기 한심한것은 민전이 친일친미반동세력의 소굴인 《한국민주당》이나 리승만일당을 반대하는 창끝보다 김구를 비롯한 림정계민족주의세력을 반대하는 창끝을 더 날카롭게 벼리는 그것이였다. 민전은 김구를 《반공대장》, 《테로대장》이라고 하며 《김구타도》구호까지 내들었다.

남조선에서 민주력량의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적지 않은 인사들은 파쟁분자들처럼 협애한 사람들과는 손잡고 함께 일할수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저었다.

허헌, 려운형 등 애국적인사들의 주관하에 결성되였던 민전은 이렇듯 남조선애국력량의 분렬과 대립을 노린 미국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의해 결성취지와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공산당과 함께 다른 근로자당들이 조직되였는데 남조선에는 인민당과 신민당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었다.

이 당들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정의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폭압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는데 미군정과 친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각계각층의 많은 대중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의 통합은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1946년 7월 북조선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련석회의에서 두 당이 합당할것을 성명하자 남조선에서도 인민당의 제의에 의하여 3당합당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여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단 성원으로서 민주세력의 단합을 위해 마음써오던 허헌은 남조선에서의 3당합당을 지지하면서 그 사업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합당사업은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책동과 파쟁분자들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미국은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 당들에 박아넣은 앞잡이들을 내세워 이 당들을 안으로부터 분렬와해시키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파쟁분자들은 합당이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을 목적한것이

고 또 3당의 당원들이 적극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갔다.

공산당에 기여든 파쟁분자들은 겉으로는 합당사업을 지지하는척 하면서 사실상 인민당, 신민당과의 합당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파쟁의 여파는 인민당, 신민당에도 미치게 되였으며 이 당들의 내부분렬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허헌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1946년 중순 그는 동네집에 마실다니는 늙은이의 차림새그대로 38°선을 넘었다.

그때 로동법령집행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 어느 한 지방에 내려와있던 허정숙은 마침 아버지가 그곳에 와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허헌과 그의 딸 허정숙은 꼭 10년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북으로 들어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였다.

며칠간을 기다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허헌은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서울로 다시 돌아갔다.

그가 돌아간지 사흘만에 조국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헌이 다녀갔다는것을 아시고 허헌선생과 같은 년로한분이 우리를 만나보러 분계선을 넘어올적에야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하였겠는가고, 그런데 모처럼 찾아온분을 되돌려보냈으니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허헌선생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겠는가고, 자신께서 사흘만 미리 왔어도 허헌선생을 만날수 있었던건데 이번 일이 정말 안되였다고, 인차 허헌선생을 만나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허헌은 수수한 농민복차림에 중절모를 쓰고 북행길에 올랐다. 미군의 삼엄한 경계를 피해가는 험한 길이였지만 절세의 위인의 부르심을 받고 북으로 향하는 그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어려있었다.

38° 선을 무사히 통과한 허헌이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일군들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험한 길을 오느라고 피곤할터인데 련락이 있을 때까지 푹 쉬라는 수령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허헌이 이날 오후 피로를 풀고나서 소풍을 하고있을 때 승용차 한대가 숙소앞으로 급히 달려와 멈추어섰다.

순간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빛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차에서 내리시는것이 아닌가.

왜놈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백두산호랑이가 바로 저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허헌은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엎어질듯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려간 허헌은 마음을 진정하고 수령님께 인사를 올린 다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항상 밝혀주시는 장군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저때문에 이처럼 먼길을 몸소 나오시다니 황송하기 이를데없다고 진정의 말씀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를 만류하시며 선생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다가 헛수고를 하셨고 또 이렇게 험한 길을 오시는데 제가 어찌 평양에 앉아서 선생님을 맞을수 있겠습니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헌과 함께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의논해주시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수공업자, 상인, 기업가, 종교인 등 광범한 대중이 단결해야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파벌싸움과 령도권쟁탈을 위한 분파적행동을 없애고 남조선에서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을 반드시 이루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허헌에게 합당사업에서 나서는 암초들을 극복해나갈수 있는 방도들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나서 우리 당은 선생님을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깊고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사랑과 믿음이였다.

항상 자신을 이 나라의 평범한 백성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온 허헌은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크게 해놓은 일도 없는 자기를 그처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앞에서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절세의 위인의 품에 안겨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백배의 신심과 용기를 받아안은 허헌은 비록 나이가 많은데다가 해방전 왜놈들에게서 받은 고문과 감옥생활의 후과로 건강이 악화되여있는 상태였지만 밤낮을 가림없이 3당합당사업을 추진시켜나갔다.

그는 평소부터 파쟁군들을 미워하였다. 우리 민족을 이끄실 령도자는 오직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뿐이심을 실지 체험으로 간직한 허헌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면서 공산당과 신민당, 인민당의 합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실현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허헌은 여러 기회에 3당합당사업을 방해하는 파쟁분자들의 죄행을 회의장에서 날카롭게 단죄규탄하였으며 자기에게 위험이 올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없이 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

편 파쟁분자들의 배척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그들과는 합작을 못하겠다고 동요하던 인사들을 만나 3당합당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복하였다.

허헌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마침내 1946년 11월말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이 합쳐져 남조선로동당이 결성되였다. 허헌은 결성대회에서 남로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이전에는 민족적기개와 넋을 간직하고있는 량심적인 민족변호사로, 민주력량의 통일단결을 바라는 애국인사로 불리우던 허헌은 이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된 애국의 길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1947년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세력에 대한 미국과 그 주구들의 탄압은 더욱 횡포해졌다.

7월 19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세력의 대표적인물이였던 려운형이 백주에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타리에서 무참하게 암살당하였다.

한편 미국은 8.15를 계기로 8.15폭동음모사건이니 방송국적색음모사건이니 하는 모략극들을 날조하고 경찰들을 내몰아 남조선로동당과 근로인민당, 민전을 비롯한 민주정당, 단체들과 애국적인사들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서 장애물로 되고있는 애국적민주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한 미국의

비렬한 음모에 따른것이였다.

이 시기 허헌의 집에 대한 테로분자들의 침입사건도 꼬리를 물고일어났다.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반동단체의 테로분자들은 밤마다 담장을 넘어들어와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사라지군 하였다.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집안에 달려들어 소동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낮에 경찰이나 형사가 찾아와 이것저것 심문하는척 하다가는 공연한 트집을 걸어 가택수색을 하면서 온 집안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놓군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의 일가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후 룡산구 청파동에 옮겨가서도 계속되였다.

그무렵 허헌을 더욱 괴롭힌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민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워 미제와 반동들의 책동에 과감히 맞서나가야 하겠는데 남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남조선에서 3당합당에 의해 남조선로동당의 창립은 선포되였지만 파쟁분자들의 책동으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 대중적정당으로 되지 못하였다.

파쟁분자들은 허헌의 신변안전을 구실로 내대면서 그가 공개합법적인 활동을 피하고 비밀활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떠

벌이였다.

한편으로는 경찰과 테로분자들을 사촉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그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허헌을 따돌려놓고는 저들의 지지자들로 《지도부》를 비법적으로 꾸려놓고 중요한 문제들을 제멋대로 토의결정하며 당을 사분오렬시켰으며 당의 로선을 란폭하게 외곡하고 모험주의적폭동을 선동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무모한 희생을 강요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민주인사들을 함부로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물론 그들의 영향하에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까지 파쟁분자들과 더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등을 돌려대게 하였다.

그러나 허헌은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애국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허헌은 모든것을 **김일성**장군님의 뜻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자들과 맞서나갔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헌에게 편지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놈들과 파쟁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지적하신 다음 미제가 민주주의적정당들이 단결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려나갈수록 남조선로동당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단독정부》수립책동을 짓부시고 친일파, 매국역적들을 제외한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자주적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허헌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하늘같은 은정을 받아안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 허헌은 파쟁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민족을 분렬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각계층 애국력량을 불러일으켰다.

이무렵 남조선에서는 친미적인 《단독정부》를 조작하여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였다.

통일적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한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미국은 그 책임을 쏘련측에 전가시키면서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가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속심에 대하여 미국신문 《뉴욕 져널 앤드 아메리칸》(1947년 9월 17일부)까지도 《38°선 이북에 놓여있는 조선의 절반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획득하려는 기도에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될 남조선공화국을 세우려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렇게 되여 민족분렬의 위기는 더욱 격화되고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다.

우리 민족앞에는 미국의 남조선《단독정부》조작책동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파탄시키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하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7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민족앞에 닥쳐온 영구화될수 있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기를 언급하신 후 우리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만일 우리가 나라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력사와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협상, 남북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남북협상방안에 온 민족이 환성을 올리며 호응해나섰다.

허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북협상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민심에 부응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남북협상방안을 지지하여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

려나갔다.

그는 자기가 직접 중간 및 우익계인사들을 만나 그들에게 북조선에서의 민주개혁의 빛나는 성과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북협상제안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리고 리승만을 내세워 《단독정부》를 조작하려는 미국의 간계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되며 우리 나라를 분렬시켜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음모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거의 대다수의 정당, 단체들이 남북협상을 지지해나서고 남조선의 전반적민심이 북으로 쏠리게 되자 바빠맞은 미국과 리승만역도는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류례없는 탄압만행을 감행해나섰다.

그리하여 허헌은 이미 내려진 체포령에 살벌한 테로의 위험이 겹치여 더이상 남조선에 있을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헌의 신상에 닥쳐온 엄중한 위험을 아시고 즉시 그를 북으로 소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1947년 12월 북으로 들어오게 되였다. 다음해 1월 그의 가족들도 무사히 38°선을 넘어 평양에 오게 되였다.

허헌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관심과 은정속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남조선에 조성되는 정세와 미국의 책동에 대하여 늘 주시하였다.

미국은 1948년 1월 8일 우리 민족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끌어들여 남조

선에서 《단독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화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미국이 추구하는 《단독정부》조작책동을 파탄시키고 민족통일의 실현방도를 합의하기 위한 남북협상을 하루빨리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1948년 1월 9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시고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개별적인사들에게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할것을 호소하는 서한이 보내지게 되였으며 이후에는 4월남북련석회의 초대장이 그들에게 가닿게 되였다.

드디여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1948년 4월 19일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물론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바라는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가 성대히 개막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련석회의의 보고에서 우리 나라의 분렬을 꾀하는 미국의 침략책동을 폭로하시고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망국적단독선거를 거부하

고 파탄시키는것을 당면한 최대의 정치적과업으로 내놓으시였으며 이 거족적인 투쟁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엄중한 때에 우리가 단결하여 일대 구국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민족과 후손들에게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을 하신 다음 허헌은 남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연단에 올랐다.

그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나라와 민족앞에 닥쳐온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모두 미국과 리승만도당의 단독선거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련석회의가 진행되던 어느날 김구가 허헌을 찾아왔다. 해방전부터 인민들속에서 독립투사로, 애국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두사람의 상봉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구는 허선생이 내 심정을 알아줄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왔다고 하면서 그에게 평양에서 받은 큰 감동에 대해 피력하였다.

내가 만났던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가 똑 제일이라며 남을 깔보고 헐뜯는 파쟁군들이였고 세계혁명이 어쩌구저쩌구하는 빈말공부쟁이들이였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라면 미워하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공산주의자도 그나름이라는것을 이제야 알았다. 조국애와 민족애가 없는 사람은 무슨 주의자든 나는 반대다. 그러나 김장군의 공산주의는 절대찬성이다. 장군님의 공산주의야말로 누구나 절대찬성할 공산주의이다. …

김구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허헌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김일성**장군은 조선이 처음 낳은 영웅이시오. 조선의 운명은 그분에게 맡길수 있소.

허선생의 말이 옳았소. 참 훌륭한분이시오. 나는 공산주의자를 믿지 않았지만 이분만은 믿을수 있소.

내 이제는 늙어서 축성여석이지만 그분의 휘하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오.》

흩어진 광선을 다 모아도 태양을 이루지 못하듯이 제노라는 인물들은 많아도 우리 민족을 이끌 령도자는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는 진리를 이미 먼저 깨달은 허헌이였지만 그는 김구의 진정에 넘친 고백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선의 행운을, 그 품에서 밝아올 조선의 밝은 래일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마지막당부

미국이 1948년 5월 10일 총칼의 위협속에 단행한 단독선거는 남조선인민들 대다수의 반대와 배격을 받은것으로 하여 사실상 선거 아닌 선거로 력사에 기록될 정도로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선거결과를 날조하고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로 구성된 《국회》를 조작해냈다.

미국과 그 주구들의 책동으로 남조선에 《국회》가 조작됨으로써 민족분렬의 위험은 더욱 커졌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해 6월 29일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가 열리였다.

그무렵 허헌의 건강은 좋지 못하였다. 집을 나서는 그를 만류하는 안해에게 허헌은 나라가 영구분렬의 위험에 처했는데 내 한몸이 뭐 그리 중한가고 하면서 기어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이 5월 10일 망국적 단독선거를 꾸며낸것으로 하여 조국분렬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된데 대하여 지적하시고나서 지체없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세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할데 대하여,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도가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것이라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남조선에서 조작된 단독선거를 비법적인것으로 선포하는것과 함께 하루빨리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허헌의 얼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창건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리라는 결심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그는 낮에는 낮대로 협의회에 참가하고 또 군중집회에 참가하여 불을 토하는듯 한 열변으로 연설을 하였다. 밤에는 밤대로 집에 돌아와서 신문, 통신자료들을 읽으며 늦게까지 정세를 연구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하였다.

허헌은 적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비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남조선에서의 선거투쟁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활동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테로와 탄압으로 하여

먼저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인민대표들을 선출하는 사업부터 진행되였다.

남조선 전체 선거자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여 1 080명의 인민대표들을 선거하였다. 허헌은 이때 서울시대표의 자격으로 선거에 참가하여 대의원후보자로 선거되였다.

선출된 대표들은 사선을 헤치고 륙로로, 배길로 해주에로 모여왔다. 그들은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마침내 귀중한 결실을 맺었다.

남북조선총선거의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수립되였다.

1948년 9월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성대히 열렸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9일 전조선적인 통일중앙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구성하시고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남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

하여 세워진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며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석같은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였다.

한 해외동포는 《정통과 계승》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 북인가 남인가.

첫째로, 외세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강점했을 때 누가 정면으로 맞서싸웠는가.

둘째로, 해방이 되였을 때 어느쪽이 식민지잔재를 옳바르게 청산했는가.

셋째로, 누가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권을 창출했는가.》

그러면서 그는 손에 무장을 들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맞서싸웠으며 그 식민지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민족주체적힘으로 통일정부를 세운 북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썼다.

공화국의 창건이 선포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 허헌은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으로, 그의 딸 허정숙은 초대내각의 문화선전상으로 임명되였다.

어제날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애국의 마음을 바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허헌과 그의 딸이 새 조선의 국가활동가들로 선출된것이다.

홍명희, 리극로, 백남운, 리병남 등 남조선의 애국인사들

이 초대내각의 부수상, 상들로 임명되였다.

감격과 흥분이 없이 대할수 없는 이 현실은 애국의 길에서 한번 손을 잡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변함없이 믿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가 펼친 또 하나의 사랑과 믿음의 전설이였다.

1948년 9월 하순 허헌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였다. 그가 극력 사양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종합대학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대학이며 공화국의 최고학부이라고, 종합대학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대학을 민족간부양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튼튼히 꾸려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대학교수교양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합대학은 민족문화의 전당이며 과학의 거점이라고, 이런 중대한 대학의 지도사업을 선생에게 맡기는 기대는 크다고, 우리 후대들을 잘 키워주리라는것을 믿는다고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남녘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모두 평양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도록 하시고 그의 생일날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그의 집에까지 찾아오시여 생일을 축하해주시면서 총장선생은 건강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몸조리를 잘하여야 하겠다고, 부디 몸건강하라고 거듭 당부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허헌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으로 내세워주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정열을 바치였다.

허헌은 여러가지 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자주 **김일성**종합대학에 나가 교수참관도 하고 교직원, 학생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대학사업이 잘되여나가도록 여러모로 애썼다. 어떤 때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강의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것만도 104개나 되는 원소들, 저마끔 서로 다른 전자수와 무게, 지구화학적성질을 가진 그 매개 원소들이 모여 이 세계를 형성하고있다.

그것처럼 사람들도 각이한 생활경위와 성격, 서로 다른 기질과 지향을 가지고있지만 공고한 이 사회를 이루고있다.

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원소도 있다. 그것들은 공기중에 드러나기만 해도 쉽게 불타서 산소화합물이 되거나 완전히 다른 원소로 변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학생들은 그런 원소가 되여서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사회의 한 원소로서 변치 말아야 할 고유한 공통의 속성인 신념을 버림으로써 딴 물질 즉 집단보다 자기의 리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리기주의자, 나아가서 조국반역자가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

허헌이 어느 한 강의에 출연하여 한 이 말을 평생 잊을수가 없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총장선생님의 이 말을

되새겨보며 이겨내군 하였다고 그전날의 학생들은 말하였다.

그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도 종합대학의 전시교육사업을 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먼 후방에 새 교사와 기숙사를 건설하여 민족교육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수 있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마침내 대학이 꾸려지고 전선에 탄원했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다시 대학에 온 학생들, 종합대학추천을 받은 전쟁에서 단련된 청년들도 다 도착함으로써 드디여 개교식이 열리게 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교식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려는 허헌에게 아직 장마가 걷지 않았으니 장마가 멎고 강물도 다 진 다음에 떠나는것이 좋겠다고, 지금은 장마때문에 강물이 불어서 청천강을 건느기 곤난할것이라고,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꼭 장마가 멎은 다음에 경비대동무들과 함께 떠나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토록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헌은 개교식에 책임상 총장이 꼭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학이 자리잡고있는 곳으로 기어이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에 딸 허정숙에게 이런 말을 남기였다.

《요즘엔 자꾸 김책이 생각이 간절해지는구나.

참, 사람두…

나라형편이 이토록 어려운 때 장군님곁에 굳건히 서있어야

할 사람이 왜 그리도 마지막길을 재촉했다더냐. 장군님곁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장군님신상이 늘 걱정되누나. 항상 마음에 걸려…

장군님이 안 계시면 우리 조선이 살아나지 못한다.

너도 그분의 안녕에 언제나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때는 1951년 8월 중순이였다.

허헌일행이 청천강의 지류인 대령강가에 이르렀을 때 강의 물량이 상상밖으로 훨씬 크게 불어나 건너가기가 매우 위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적비행기의 폭격으로 다리까지 파괴된 상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며칠 기다렸다가 물이 찐 다음에 강을 건너가자고 허헌을 설복하였다.

그러나 제시간에 개교식에 참가하자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전시대학교육을 제대로 보장하라는것은 장군님의 뜻일세.

개교식을 늦출수가 없네. 학생들이 기다리고있는데 총장이라는게 어떻게 여기서 우물거리겠나.

그래 아무때면 미국놈들이 이 허헌이 편안히 강을 건너가라고 놔둘상싶은가.

두말말고 어서 건너가자구.》

일행은 적기의 폭격이 좀 뜸해진 틈을 타서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강을 건느기 시작했는데 강 한복판에 들어서던 떼목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거칠게 사품치는 물살에 떠밀리

우더니 파괴된 다리기둥에 부딪쳐 그만 파괴되고말았다. 세찬 물결에 휘말려든 허헌은 다시는 물우로 솟아나지 못하였다.

이튿날 새벽 허헌이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으시였다. 한 일군이 허헌이 잘못된것이 사실이라고 거듭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들으시던 수령님께서는 왜 그런 위험한 강물에 허헌선생을 건너보냈는가고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헌선생을 꼭 찾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사회안전상을 비롯한 여러 일군들을 현지로 파견하시면서 적들의 모험적인 《하기공세》가 박두한 때였지만 3 000여명의 군인들을 이 사업에 동원하도록 즉석에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해군군함들까지 동원시켜주시였다.

바다밑을 다 뒤져서라도 그의 시체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군군인들과 경비대대원들 그리고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도 동원되였다.

그처럼 찾고찾던 허헌의 시신은 시체가 파도에 밀려 북쪽으로 갔을수도 있으니 남쪽에서만 찾지 말고 북쪽으로도 찾아보라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대로 수색작업을 북쪽방향으로 벌렸는데 정주앞바다에서 발견되였다.

해당 일군으로부터 허헌의 시신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고인의 시체를 찾았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품에 안기여 그처럼 기뻐하던 허헌선생이 조국통일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너무도 빨리 떠나갔다고, 허헌선생이 돌아가서라도 우리와 늘 가까이 있도록 평양에 묘를 써주자고, 고인의 령구를 평양으로 올려올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허헌의 령구는 해당 일군들의 호송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하여 모란봉지하극장에 안치되게 되였다.

허헌의 령구가 도착한 날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정숙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잃은 아픈 마음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고, 이제부터 자신께서 아버지를 대신하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헌선생은 당에 충실한 사람이였다고, 그렇기때문에 자신께서는 허헌선생을 굳게 믿었다고, 이번 일로 동무는 자기 가슴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내 가슴이 더 아픈지도 모른다고 하시고는 말끝을 흐리시며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참 가슴아픈 일이라고, 허헌선생이 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없었는가고 물으시였다.

허정숙은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직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의 아버지는 나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내 신변을 항상 념려해주었습니다. 선생은 참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분이였습니다.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서슴지 않고 자기를 바치는 그런 혁명적열정이 강했습니다.

조국이 통일되지 않았고 전쟁도 아직 결속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가시겠소. 좀더 앉아계셔야 하는건데…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요.

동무는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있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

허헌의 령구가 발인되는 날이였다. 모험적으로 감행되는 미국의 《하기공세》로 하여 전선의 정황이 매우 긴박하였지만 장례식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령구를 발인할 시각이 오자 선참으로 령구의 앞채를 메시고 모란봉지하극장의 높은 계단을 한단한단 오르시였다.

그날 오후 허헌의 묘소를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세상을 떠난 그와 마음속대화를 나누시는듯 오래도록 분묘앞을 뜨지 못하시였다.

흐리신 안색으로 분묘주위를 돌고도시던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 판 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주변에 잔디를 더 입혀야 한다고, 미국놈들이 어떤짓을 할지 모르는 조건에서 새로 만든 분묘라는것이 알리지 않도록 잔디를 잘 입히라고 거듭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거듭 간청해서야 묘소를 떠나시던 수령님께서는 자주 발걸음을 멈추시고 묘소를 한참동안이나 돌아보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에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의 자취가 어려있는 장소를 지나실 때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허헌선생은 애국심이 강하고 혁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높은분이였다고 추억하시였으며 애국렬사릉이 새로 건립되였을 때에는 그를 그곳에 안치하도록 해주시였다.

해방후부터 허헌의 일가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애국애족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1990년대 중엽에 애국애족의 뜻을 지니고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참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허헌과 그의 딸의 지난날을 소재로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허정순편)을 세상에 내놓도록 하시여 그들의 삶이 민족과 더불어 빛나도록 해주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값있게 장식한 허헌의 한생은 오늘도 말해주고있다.

애국의 뜻을 굽히지 않고 량심과 의리에 사는 사람들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모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늘이 위대하고 그래일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최 일 천 편

오가자의 《농우》 주필 ······························ 158

《동아일보》 장춘지국의 《요시찰인》 ··············· 168

남녘땅을 뒤흔든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 174

오늘도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 187

경력

- 1905년 10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
- 1913년 부모를 따라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
- 1921년 독립군 입대.
- 1929년 12월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 1930년 10월 오가자반제청년동맹 위원장, 잡지 《농우》 주필.
- 1931년 《동아일보》 장춘지국 기자 및 지국장.
- 1945년 12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위원.
- 1945년 12월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발행.
- 1946년 9월부터 신진당 중앙위원회 부장, 민족자주련맹 집행위원.
- 1950년 11월 5일 피살.
- 1993년 4월 조국통일상 수상.

최일천이라고 하면 한생 펜으로 나라의 독립과 통일애국위업에 이바지해온 깨끗하고 량심적인 투사의 한사람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시할수 없는 큰 공적을 쌓았지만 필명으로 글을 쓴데로부터 그의 이름은 사람들속에 크게 알려지지 못했고 더우기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기에 반동들에게 암살되다보니 력사의 조명을 적게 받아왔다. 그러던 그가 독립투사, 통일애국인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민족의 어버이의 회고록을 통해서였다.

유럽의 한 정치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훌륭하게 살았는가가 문제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였다.

그의 한생을 통하여 사람들은 일찌기 세상을 떠났고 오래동안 력사의 락엽속에 파묻혔던 한 지성인이 어떻게 되여 겨레와 후손들의 추억속에 길이 빛나게 되였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될것이다.

오가자의 《농우》 주필

최일천은 이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짙게 드리우고있던 1905년 10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소작농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어릴 때의 본명은 최찬선이였다.

나라잃은 망국노의 멍에는 그의 집에도 례외없이 씌워졌다. 국내에서 더는 살길을 찾을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는 1913년경 끝없이 흐르던 이민행렬에 섞여 가족을 이끌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모여살고있었는데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밑에 민족교육사업과 독립군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었다.

최일천의 부모들은 중국인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최일천은 이곳에서 소학과정을 마친 다음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으면서도 독학으로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국땅이라고 하여 결코 편한 곳이 못되였다. 1920년 10월 일제의 《토벌대》가 이곳에도 쳐들어와 그의 형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형과 마을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일제에 대한 복수심에 끓어넘친 최일천은 1921년초에 당시 류하현 삼원포에 있던 오동진사령의

독립군부대에 입대하였다. 오동진은 나이어린 그를 곁에 두고 련락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최일천은 독립군병사생활을 하면서도 중학교강의록을 구하여 계속 공부하였다. 1924년에 정의부에서는 류하현 삼원포에 동명중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오동진은 총명하고 남달리 향학열이 높은 최일천을 이 학교 상급반에 추천하였다. 그리고 1년후 학교를 졸업한 최일천을 자기의 서기로 일하게 하였다. 정의부본부는 길림에 있었다.

당시 정의부는 행정, 재무, 사법, 군무, 학무, 외교, 검찰 등 중앙기구와 무송, 반석, 관전, 삼원포, 화전 등 지역에 총관소라는 자치적인 지방기관까지 꾸려놓고 관할구역의 조선동포들한테서 세금까지 받으면서 한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행세를 하였다.

최일천은 정의부본부에서 중앙행정부서 책임자들과 독립군 각 중대장들의 사업정형을 매일매주 종합하여 오동진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독립운동자들을 알게 되였다.

그는 정의부의 정책적문제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글들을 써서 《대동민보》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경영하던 신문, 잡지들에 기고하였다.

이러한 집필활동으로 최일천은 정의부내에서 문장가로 알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을 중퇴하시고 길림으로 혁명활동무대를 옮기시였을 때 최일천은 오동진의 소개로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웠다. 오동진이 서기자랑을 많이 하였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최일천에 대해 일정하게 알고계시였다.

그후에도 최일천은 오동진의 집에서 류숙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자주 만나뵙는 과정을 통하여 그이의 뜻과 인품에 매혹되였고 점차 수령님을 따르고 받드는 혁명동지가 될 결심을 품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민족주의진영안의 진보적인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민족주의상층을 단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오동진이 일제놈들의 간계에 빠져 체포된 다음에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3부통합서기로, 조선혁명당의 정치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운동내 각파들의 무분별한 세력다툼은 그칠새 없었고 상층은 점차 반동화의 길로 나갔다. 1928년에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통합하여 국민부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절반짜리 통합이였고 그와 대립되여 림시혁신회라는 단체가 생겨났다.

더우기 민족주의진영내에 공산주의사상이 전파되는것을 매우 두려워하던 이들은 새 사조를 따르려는 진보적인 청년들을 마구 살해하는 망동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최일천은 이 파벌싸움과 동족살륙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지만 민족주의진영의 와해를 막지 못한채 가족이 있던 오가자로 가게 되였다.

오가자라는 지명은 료하기슭에 조선사람들의 리상촌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인 변대우, 김해산을 비롯한 다섯사람의 가족들이 먼저 살림을 폈다고 하여 붙여진것이였다.

최일천의 가족은 이미 1924년에 오가자로 옮겨와 살고있었다. 최일천은 몇해전에 오동진의 주선으로 마을의 좌상인 변대우의 딸과 결혼을 하였었다. 오가자에 내려온 최일천은 삼성학교 교원을 하면서 청년회 회장사업을 맡아하였다.

이러한 때인 1930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투쟁과 관련한 중요회의를 소집하며 겸하여 마을을 혁명화하실 구상을 안으시고 오가자마을로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가자에서 활동하시는 기간 최일천의 집에서도 몇주일동안이나 류숙하시면서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일천이 책임지고 사업해온 청년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료해하시였는데 당시 오가자의 청년회는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개척된 료하농촌의 조선청년들을 망라한 단체로서 이름뿐이지 이렇다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오가자에 오신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최일천과 함께 삼성

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년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지금 우리 청년들앞에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청년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시대풍조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는 오가자를 혁명하는 마을로 꾸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지난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이 실패를 거듭해온것은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이 대중과 동떨어져서 독립운동을 소수집단의 파벌운동으로 만들어버렸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어떤 운동도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하며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새로 내오는 반제청년동맹은 우선 각 부락에 지부들을 내오고 그 지부들이 조직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놀도록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그리하여 오가자의 전체 청년들이 조직에 결속되여 한사람같이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오가자반제청년동맹결성모임이 진행되였다. 이 모임에서 최일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에 의해 오가자반제청년동맹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국내외정세에 대하여,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에 대하여, 반제청년동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청년동맹을 내오신 다음 마을의 대중단체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시였다. 그리하여 청년회가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된데 이어 농우회가 농민동맹으로, 소년학우회가 소년탐험대로, 남만녀자교육련합회 오가자지부가 부녀회로 개편되여 오가자대중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가자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이시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가운데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에 교원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주동이 되여 학교의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도록 하시였으며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심부락뿐아니라 주변부락들에도 야학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청소년들을 다 망라시키도록 하시였다.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국치일가》나 부르면서 그 무슨 《리상촌》건설의 허황한 꿈을 꾸어오던 오가자농민들이 혁명조직에 망라되여감에 따라 대중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요구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대중교양사업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할것을 계획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소극적이지만 문필활동을 해본 최일천을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해 11월 초순 어느날 농민동맹과 반제청년동맹 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사람모두에게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늘 보고 배울수 있는 정기적인 출판물을 발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잡지의 제호를 《농우》라고 달아주신 다음 그 편집사업을 최일천에게 맡겨주시였다.

최일천의 가슴에서 열정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농우》의 발간을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석유등잔불밑에서 밤이 지새는줄 모르고 원고집필에 전심전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일천을 도와 창간사와 함께 심오한 내용을 담은 글도 친히 집필하여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발간된 《농우》는 최일천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농민동맹기관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잡지 《볼쉐위크》와 마찬가지로 간도에까지 배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그 당시 내게 제일 그리웠던것은 김혁과 최일천이였다고, 카륜과 오가자시절의 막역지우들이였던 《볼쉐위크》의 주필 김혁과 《농우》의 주필 최일천은 쌍벽을 이루는 재능있는 문장가들이였다고, 시인인 김혁의 글이 범람하는 장강처럼 호방하고 격동적이였다면 최일천의 글은 민족적인 색채가 짙으면서도 지성도가 높고 분석이 예리하였다고 회고하시였다.

그는 반제청년동맹 위원장사업을 하면서도 꾸준한 사색속에서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였으며 공주령의 도자판매소에 파견되여 지하사업도 능숙하게 벌려나갔다.

최일천은 오가자에서 민족의 대통운을 맞이한 인민들의 환희를 보았고 눈부신 천지개벽을 보았다.

불과 몇달사이에 시대사조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료하농촌이 어린이들모두가 무료로 공부하고 누구나 병치료를 받으며 농민들과 청년들, 녀성들과 소년들모두가 각각 자기의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는 혁명촌으로 전변되고 여기에 도처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모여들게 된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때 독립운동을 한다고 국내와 만주 각지는 물론 쏘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며 세상의 《영웅호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보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다는 마을의 좌상 변로인이나 글과는 담을 쌓고 농사일밖에 모르던 박로인도 지나온 생활에 대한 후회속에 새로운 인생길에 나서서 혁명에 뛰여든 오가자의 현실은 실로 천지개벽이라고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가자마을은 이렇듯 짧은 기간에 《리상촌》으로부터 《혁명촌》으로 개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해같은 인간사랑, 겨레사랑은 그대로 평

범한 인민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인민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였고 그이의 모든 활동은 애국애족에 기초를 두고있었다.

주의주장에 앞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상과 걸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던 최일천은 변대우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과 차광수, 계영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밤하늘에 빛나는 새별에 비겨 부르던것을 태양에 비기여 부를것을 발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빛나시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한일(一)자, 별성(星)자 대신 날일(日)자와 이룰성(成)자로 된 존함을 드리였던것이다.

김일성!

정녕 그 존함은 그 어떤 개인이나 계층이 아닌 전체 조선인민이 마음을 모아 지어드린 태양의 존함으로서 그것은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던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통일단결과 령도의 중심, 위대하고 걸출한 령수를 맞이한 민족의 환호였으며 민족대통운의 상징이였다.

이때의 감격을 최일천은 해방직후 자신이 집필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이렇게 썼다.

《1926년이다. **김일성**(본명 김성주 평양출신)은 길림에서

소년운동지도자의 1인으로 1년유여의 시일에 심혈을 짜내였다.

사회적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김일성**의 순진한 심리에는 고민의 파동이 일어났다. …

좌우익의 소아병적경향을 배제하고 <ㅌ.ㄷ> 즉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였다. …

김일성에 대한 기대와 이 단체들의 운동은 컸다. 열의인, 정의인 **김일성**에 대한 민중의 지지도 컸다. 아니 지지라기보다… 소년혁명가 **김일성**은 완전히 민중의 친애하는 아들로서의 동생으로서의 사랑을 받았고 또 **김일성**은 그들 민중에 대해 진심으로 봉사할것을 심약하였다. …》

글에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대와 교조에 물들지 않은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전위조직인 《ㅌ.ㄷ》에 묶어세우시고 조선혁명의 령도의 중심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칭송되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력사가 방불하게 서술되여있다.

해방후 최일천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력사를 그토록 생동하고 방불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에 써낼수 있은것은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 매혹되고 민족의 태양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른 그의 사상정신세계의 반영이였다.

《동아일보》 장춘지국의 《요시찰인》

태양은 만물의 싹을 틔워주고 키워줄뿐아니라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는 우주의 광원이다. 그 광휘로운 태양의 존함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최일천을 변심을 모르고 굴할줄 모르는 혁명가로, 애국자로 성장하게 하였다.

1930년 12월 하순 오가자에서 진행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 및 혁명조직책임자회의에 참가한 최일천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받아안았다.

오가자회의이후인 다음해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무대를 두만강연안 동만으로 옮기시며 오가자를 떠나시기에 앞서 최일천에게 오가자마을의 혁명조직들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글재간도 뛰여나니 앞으로 국내의 이름있는 신문인 《동아일보》 장춘지국에서 합법적인 기자로서 항일혁명투쟁에 기여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최일천과 조직성원들은 그때 위대한 수령님과 헤여지는것이

너무도 섭섭하여 멀리까지 따라나섰다.

그들의 애절한 심정을 헤아려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항상 인민을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을 적극 도와주고 청년들의 교양에 힘쓰며 조직을 튼튼히 꾸려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비밀을 엄수하고 경각성을 높여 밀정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처단함으로써 조직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신 다음 혁명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혁명이라는 큰 집안에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고 하시며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오가자를 떠나시였다.

이날은 최일천이 그이를 마지막으로 뵈온 날이였다. 나라가 해방된 후 그가 선뜻 북행길에 올랐더라면 그처럼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동안의 그리움을 터치며 그이의 슬하에서 새 조선건국에 한몫하였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와 의리를 지켜 남녘땅에 남아 험준한 통일애국의 길에 스스로 나섰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최일천은 1931년 5월에 이미부터 관계를 가지고있던 《동아일보》 장춘지국에 들어가 기자로, 후에는 지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국내애국인사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반일투쟁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다.

한편 9.18사변을 일으키고 전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청나라

의 마지막황제 부의를 내세워 괴뢰만주국을 조작하면서 장춘(신경)을 수도로 정했다.

그때 장춘에서 활동하던 최일천은 《동아일보》 지국장으로 이름이 뜨르르해져 봉천(심양), 길림, 연길, 안도, 무송, 장백, 통화, 단동은 물론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합법적으로 오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소식들을 《동아일보》에 신속히 내군 하였다.

물론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출판검열에 의해 내용이 많이 삭제, 외곡되기도 했지만 신문에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소식이 련속 나갈 때마다 그는 자기의 본분을 미력하게나마 수행해나간다는 긍지로 가슴을 불태웠다.

최일천은 합법적인 기자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주광야에서 벌리시는 무장투쟁소식들을 하나하나 수집해두었으며 반제청년동맹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명의 핵심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보내주는 일도 하였다.

1936년 5월 최일천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일천에게 직접 파견하신 비밀통신련락원이 그를 찾아왔던것이다. 련락원은 그에게 그해 5월 5일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을 결속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고 그 회장으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추대되

시였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최일천에게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규약》 등을 찍은 등사문건을 전달했으며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일천을 변함없이 혁명동지로 믿고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이였다.

믿음은 그 인간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다. 하물며 온 민족이 우러러보는 절세의 위인의 믿음임에랴.

이날 최일천은 백두산쪽을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그 크나큰 믿음에 한생을 바쳐 보답할 철석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최일천은 그해 7월 《동아일보》본사출장을 빗대고 서울로 가서 리극로를 비롯한 이름있는 인사들을 조국광복회에 망라시키는 공작을 하고 다시 장춘으로 돌아갔다.

당시 최일천으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소식을 자료화해놓으면서도 그것을 기사에 담지 못하는것을 제일 안타까와하였다. 그것은 그때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동아일보》가 얼마동안 정간되여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던 사정과도 관련된다.

1937년 6월 4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보천보를 들이쳐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이어 간삼봉전투에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시였다는 쾌소식에 접한 최

일천은 《동아일보》 장춘지국의 동료들과 함께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얼싸안았다.

최일천은 밤새워 그 소식을 등사기로 밀어서 국내와 만주 각지에 내보내면서 동료들에게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은 반드시 해방된다고 고무했다고 한다.

이 일로 하여 최일천은 일본정보계통이 주목하는 요시찰인으로 되여 본사의 상층과 일본관헌의 박해와 감시를 받게 되였다.

요시찰인이란 일제경찰이 일상적인 감시대상으로 지명했던 사람을 말하였다. 일제경찰은 요시찰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늘 감시미행하고 생활정형을 보고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구속하였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지국의 출입문밖에는 매일같이 일본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번을 섰다.

적들의 감시를 피해 장춘을 떠나 베이징으로 가서 생활하면서도 최일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을 수집정리하는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였다.

1940년 8월 중순 《동아일보》본사와의 잔무처리라는 명목으로 서울로 간 최일천은 서울 종로구에 자리잡은 조선어학회를 찾아가 회장 리극로를 만났다.

최일천은 자기가 일본관헌이 지목하는 요시찰인으로서 걸음걸음 감시를 받고있다는것을 이야기하면서 두툼한 미농지

에 깨알같이 박아쓴 자료들을 그에게 맡기였다. 그 자료들속에는 최일천이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오가자에서 발간하였던 잡지 《농우》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관련된 자료들, 독립운동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자료들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력사저술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남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던 최일천은 얼마후 가정적재난이 닥쳐들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조국으로 나오게 되였다.

그의 안해의 회상에 의하면 최일천은 서울에 온 후 행처를 알리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갔다가 해방되기 며칠전에 나타났다고 한다.

얼마후 최일천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기쁜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오가자에서 헤여진 후 어디에 가서나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살던 그이, 종횡무쌍하고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드디여 해방천지를 안아오신것이였다.

남녘땅을 뒤흔든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해방을 맞은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20성상 백두산에서 항일의 혈전을 벌리시여 나라를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정으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특히 일전에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웠거나 또 독립운동의 길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과 풍모에 대해 잘 알고있던 인사들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런 사람들중에는 길림시절부터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흠모하며 그이의 동지로 투쟁해왔던 최일천도 있었다.

8월 15일 최일천은 왜왕의 노루비명같은 패망연설이 있은지 얼마후에 서울에서 조선혁명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에 은거해있던 옛 정의부와 조선혁명당계의 반일독립운동자 10여명이 조선혁명당사무실에 모여들었다.

최일천은 동료들에게 하나의 정당이라기보다 옛 정의부와 조선혁명당계독립운동자들이 모여 **김일성**장군환영준비를 잘

해나가기 위한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조선혁명당간판을 내걸었다고 말하며 백로지퉁구리를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활달한 붓글씨로 10여장의 벽보문을 써내려갔다.

《만고의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래일(8월 16일)쯤에는 서울역에 개선하시게 된다는 소문입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세! 조선독립 만세!》

벽보문은 종로의 종각, 서울역전, 남대문, 광화문, 동대문 등 서울시내의 10여개의 번화거리마다에 나붙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8월 15일 오후 무더위가 수그러드는 석양무렵 곳곳에서 수십명씩 몰켜선 군중이 벽보를 마주하고 환성을 올리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날개를 단 《**김일성**장군 서울입성》소식은 온 서울일판에 삽시에 퍼져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다음날 이른아침부터 서울시민들은 서울역전광장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룡산철도공장 로동자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서울입성을 환영한다는 글을 쓴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북통을 치며 광장에 들어섰고 중학생들은 나팔을 불고 주변농민들은 농악을 울리며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광화문거리, 종로거리, 남대문거리와 역전광장은 손에손에 기발과 환영구호판들을 든 시민들의 물결로 차고넘치였고 집집의 창문과 지붕우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이였다.

역전광장과 그 주변거리들은 수십만군중들이 모여들어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온 거리가 그대로 기쁨의 파도였고 감격의 바다였다.

8월 16일이후에도 서울역전광장은 매일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군중들로 붐비였다.

중부 및 남부조선 각지의 도시와 시골에 있던 수많은 애국인사들도 해방된 새 조선의 령도자로 높이 모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리기 위해 서울로 달음박질쳐오고있었다.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반드시 서울에 개선하시리라 굳게 믿었고 장군님을 만나뵙게 될 력사의 그날만을 고대하고있었다.

애국적민주력량의 기세는 활화산처럼 끓어번졌다. 반면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착취배들은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살구멍을 찾아 전전긍긍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서울에 모시려는 남녘의 민심은 미군정의 침략적정체가 드러날수록, 정국의 혼잡성이 짙어갈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에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명망있는 학자와 문화예술인들, 젊은 지성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였다.

남녘의 각지에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가지가지의 전설적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알고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하였다.

서울의 한 지식인은 출판물에 《과연 **김일성**장군님은 어떠한분이실가? 년세는 얼마나 되시며 고향은 어디에 두셨을가? 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속에 그 어떤 전설적인 거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천하를 한손에 틀어쥐고 뒤흔드시던분이니 아마 50대는 훨씬 지나셨으리라. 무인답게 수염도 기르시고 위엄있는 체격을 가지셨으리라. 인민들에게 축지법이라는 신화적인 전법의 소유자로 알려졌고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때려 이기신분이니 그이께서는 용모에서부터 보통인물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썼다.

이것은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남녘민심을 대변하고있었다.

한편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 손때묻은 주구 리승만을 내세워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닦으려는 미국의 책동이 로골화되였고 저들만이 애국지사이고 독립투사인듯이 허황한 요설로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는 어중이떠중이들, 황당한 책들을 써내여 우리 인민의 해방투쟁사를 더럽히고있는 매문가들이 또한 서울장안을 돌아쳤다.

그러던 어느날 최일천은 종파분자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존함

을 《金一成》으로 잘못 표기한것을 보게 되였다.

격분을 금치 못한 최일천은 책상을 두드리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왜정때 일부 어용출판물들이 오기한대로 쓴다는게 될말인가고 하면서 장군님의 존함을 정확히 표기할데 대해 추상같이 요구하였다.

이 일은 최일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혼잡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위인을 세상에 알려야 할 지성인의 력사적사명감을 깨달은 최일천은 려운형, 홍명희 등 애국인사들과 함께 연설, 강연으로 낮과 밤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통절히 느낀 최일천은 어느날 안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형세로 보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투쟁자료들을 가지고 글을 써서 책으로 찍어내는것은 우리 지성인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과제요. 나는 이 력사적과제를 곧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소.》

그리고는 지금껏 수집해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와 그것을 수록한 신문, 잡지들, 만주일대에서의 조선독립운동자료들을 궤짝에서 꺼내놓았다. 그 자료 한점한점을 위해 간난신고를 겪으며 만주광야를 헤매였고 때로는 부엌바닥에 파묻은 장독안에 숨기기도 하고 먼길을 걸어 남에게 맡기기도 하면서 귀중히 보관해온것이였다.

그날부터 최일천은 필자가 되고 안해는 조수가 되여 절세

의 위인에 대한 책자집필에 달라붙었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서울로 입성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남먼저 만나뵙겠다고 역전광장을 메우며 모여들었던 그 인민들에게 어서빨리 우리 민족이 낳은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신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알려주고싶은 강렬한 열망은 그에게 침식을 잊게 하고 밤낮을 잊게 하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집필과 동시에 최일천은 **김일성**장군님의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준비위원회를 뭇기 위한 사업으로 뛰여다녔다.

최일천은 반일애국활동경력을 가진데다가 《림꺽정》소설련재로 일반군중과 상층, 좌익과 우익, 중간층에서도 명망이 높은 홍명희로 하여금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을 발기해나서도록 청원하였다.

홍명희는 《8.15가 참된 해방으로 되지 못하고 38°선에 의한 민족분렬로 말미암아 이남땅이 미군정하의 식민지로 역전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남민중에게 마음의 기둥을 세워주고 희망의 용기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무어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그의 제의에 쾌히 동의해나섰다.

그러면서 지금 정계, 사회계, 항간에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열망이 드높아가니 그에 대한 해답으로 최일천이 집필하고있는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가 하루빨리

출판되도록 해야겠다고 고무해주었다.

이리하여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사업과 최일천의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집필발행사업은 련관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였다.

어느날 명망있는 인사들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홍명희는 정계, 사회계, 항간에서 이러저러하게 풍문으로 떠도는 백두산의 전설적영웅이신 항일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의 년세와 고향, 풍모와 존함표기에 대하여, 그이의 혁명활동략력에 대하여 인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나서 일전에 길림과 오가자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모시고 활동하였으며 오랜 기간 수집정리한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활동자료를 집대성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집필하고있는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최일천을 좌중에 소개하였다.

40대의 최일천이 일어섰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항간에서 장군별전설이 퍼지고있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좌중은 확신성있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강구었다.

《저는 남만에서 독립군운동의 정의부에 참여하여 오동진사령의 서기로 있던 때인 길림에서부터 **김일성**장군님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분은 평양 만경대가 고향인데 지금은 33살 되셨을겁니다. 장군님의 부친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신데 제가 오동진독립군부대에 있을 때 그분께서 자주 찾아오시여 지도해주셨습니다.

저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 **김일성**장군님의 지도를 직접 받았습니다.》

감회에 젖고 격정에 겨운 최일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6년 10월에 벌써 자주의 기치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신 일이며 자기가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 위원장으로, 잡지 《농우》의 주필로 일하면서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던 때의 일들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이께 태양의 존함을 드린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에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여 항일무장소조활동을 지도하신데 대하여, 1932년 4월에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백두산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려오신데 대하여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렬거하였다.

최일천의 이야기에 끝없이 공감한 려운형, 허헌, 홍명희, 최원택, 백남운 등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에 휩싸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하루빨리 출판하자고 고무격려하였다.

인쇄출판문제는 서울시인민위원회의 힘을 적극 발동하여 내밀도록 합의했다.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의 결성사업과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집필발간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

여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시고 온 민족앞에 개선연설을 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더욱 본격화되였다.

특히 이 시기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사업과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집필발간사업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준 것은 남조선의 광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단체결성대회들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자기 조직의 명예의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그이께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를 올리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그이의 서울입성을 열망하는 결의들을 채택하는 앙양된 분위기였다.

이런 시대적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일천은 애국적인 정치활동으로 늘 바쁜 몸이였지만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집필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최일천에게 차례진 집필시간은 주로 밤뿐이였다. 앉은뱅이책상에 마주앉아 날이 새도록 집필에 전념하던 그에게 살림이 너무 구차하여 백미밥 한그릇 대접 못한 한스러움이 여직껏 남아있노라고 후날 그의 안해는 가슴아프게 이야기하였다.

두달후 제1집원고가 탈고되였다. 출판하는 일도 수월하지 않았다. 식솔많은 그의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고 《로력자》였던 손재봉기마저 팔고도 부족하여 친척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종이, 인쇄잉크, 륜전기와 조선문활자들을 마련하였다.

드디여 1945년 12월초 최일천의 변함없는 충정과 신념, 불같은 열정과 지성의 산물인 도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제1집이 세상에 나왔다.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워 천부밖에 찍지 못하였는데 책은 서점에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판매되였다. 사방에서 구독요청이 불같아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최일천은 제2집의 집필도 련이어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출판본을 내놓게 되였다.

생활에서 가장 고상한 향락은 의무를 수행했다는 기쁨이라고 하였다. 세계명인사에 전무후무한 조선민족이 낳은 걸출한 령도자의 혁명력사를 체험자, 증견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으로 출판해낸 그때의 최일천의 기쁨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출판은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결성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였다.

해방직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국에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가 출간되고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된것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해방조선의 유일한 령도자로 받들어 모시고 통일된 강토에서 살아가려는 남녘인민들의 일치한 지향과 흠모심의 반영이였으며 반동세력에 대한 통일애국력량의 자랑찬 승리였다.

책의 파급력에 불안을 느낀 미국과 반동세력들은 서점을 페쇄한다, 책을 압수한다 하며 소동을 피웠다.

글로 적은것은 도끼로 찍어낼수 없다고 하였다. 남녘인민들은 놈들의 눈을 피해 책장이 보풀이 일도록 탐독했고 어떤 젊은이들은 전문을 옮겨베끼기까지 했는데 책은 류례없는 인기도서가 되였다고 한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력사를 수록한 력사문헌인 동시에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민족적 영웅, 절세의 애국자의 혁명업적을 소개선전하여 출판된 책인것으로 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최일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혁명활동내용들을 생동한 력사자료를 가지고 활달하면서도 격정적인 필치로 뜨겁게, 열렬히 구사하였다. 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내용,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를 조직하신 내용,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고 일제와 결전을 벌리신 내용들이 수록되여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2집에 있는 《종횡무쌍한 **김일성**의 활동》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광막한 료하평원(오가자)에서 원기를 기르고 억센 송화강의 파랑으로 몸을 닦은 그는 동지 장아청(주 장울화)과 같이 무송의 산악지대로 돌아갔다는것은 서술한바이어니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김일성**은 오래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동천에서 높이 솟은 새별과도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근본적타도와 동방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선명히 하고 나

타났다. …

무송, 장백은 워낙 산악지대요, 산림이 무성하여 천험의 요새로 이름이 있지만 **김일성**장군유격대를 공격목표로 서뿔리 달려들었던자는 일본군이고 만주군이고간에 넋이 떨어지고 혀를 깨물게 되였다. 남으로 가면 남만이 흩어지고 북으로 가면 북녘이 물러났다.

뿐만아니라 **김일성**에게는 남다른 포용력이 있고 지모가 능하고 선견의 명이 있었다.

…어쨌든 **김일성**의 활약은 그야말로 종횡무쌍하였으며 혁명운동선상에 끼친 공적이 허다하여 금일의 그의 이름은 세계사에 한자리를 잡아도 손색이 없게 되였다.》

최일천은 책의 마지막부분에 《항일련합군의 사령으로 국제적활동을 한데 대해서는 그 체계를 찾는대로 후일 다시 쓰려 한다. <구우의 한사람인 필자로서 무성의한 일이다. …>》라고 썼다.

최일천은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2집을 낸 다음 다음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였으나 해방후 복잡한 남조선정치정세로 인하여 시간을 내지 못함으로써 아쉽게도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최일천의 미완성작이다. 그는 원

래 2집을 낸 다음 계속하여 다음권을 쓰려고 하였으나 해방후 복잡한 남조선정치무대에 발을 들이민 후 시간을 내지 못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책의 다음권에서 필자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였다고 한다.

최일천이 살아있었더라면 분명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것이고 그렇게 되였더라면 우리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사료들도 더 나왔을것이다.》

해방직후 정치적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장안에서 최일천이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와 같이 무게있는 글을 써냈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 글의 가치는 실로 헤아릴수 없는것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의 증견자이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문필가인 최일천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였다.

오늘도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최일천은 해방이 되자마자 정치활동에 참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체의 노력으로 동방문화사를 꾸려놓고 《동방신문》을 발행하였는데 미군정의 통치하에서도 반일투쟁만화를 찍어내여 청소년들을 반제반일정신으로 교양하였다. 신문은 미제와 반동들의 탄압으로 얼마 발행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최일천은 1946년 9월 신한민족당과 조선혁명당, 신한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통합되여 신진당이 결성된 후 신진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당을 대표하여 민주주의독립전선,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민족자주련맹 등에 관여하면서 려운형, 홍명희, 김규식, 리극로 등과 손을 잡고 민주력량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이를 반대하는 반동분자들을 당내에서 축출하고 당대표들이 련석회의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유엔결의에 의한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미군철거와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1950년 6월 28일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자 그

는 세 아들을 의용군으로 전선에 내보내였다. 그날 그는 세 아들을 불러앉히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다. 이 영예를 깊이 새기고 언제나 용감하게 싸워라. 혹시 장군님을 뵙게 되거든 이 아버지는 오가자시절처럼 영원히 장군님을 따를것이라고 말씀올려라.》라고 당부하였다.

최일천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서울에 남아 사업하다가 행방불명되였다.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떳떳하게 살았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었으나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다보니 그의 행방을 알수가 없었다.

그의 안해는 전쟁시기 남편과 헤여진 후 그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지내다가 남편때문에 들씌워지는 박해를 견딜수 없어 전후에 남아있는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길떠나 소식없는 자식을 찾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오랜 세월 최일천의 행방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1966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출판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받아보시게 되였다. 집필자의 이름은 최형우라고 되여있었다.

책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내용을 신통히 잘 아는 사람이 썼다고, 그런것을 보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쓴것 같다고 하시며 그때 최일천이라고도 부른 최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

데 이 사람이 이름을 최형우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는 《ㅌ. ㄷ》에도 관계하고 신문사지국에서도 일한 사람인데 글재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정주에 살고있던 최일천의 누이로부터 최형우가 최일천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도 찾아보겠으니 동무들도 최일천을 찾아보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러던중 마침내 최일천이 1950년 11월 5일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였다는 가슴아픈 사실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믿고 사랑하시던 최일천의 희생소식을 들으시고 그의 투쟁공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며 그리움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서울에서 발행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ㅌ. ㄷ》를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내가 중부만주일대에서 활동할 때의 투쟁자료를 잘 반영한 귀중한 원전도서이라고, 그 책을 쓴 최일천은 《ㅌ. ㄷ》성원이였고 오가자와 공주령일대에서 활동을 잘하였다고, 그는 나의 충실한 동무였다고 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일천과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을 빛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최

일천과의 연고관계와 그의 투쟁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의 추억속에 살아있는것, 그것은 인간이 한생을 통해 지닐수 있는 영광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광이며 혁명가, 통일애국인사가 누릴수 있는 행복가운데서도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1993년 4월 21일 미국에서 살던 최일천의 안해 유태정이 조국에 왔다. 자신과 최일천의 연고관계와 그의 공적에 대해 회고록에서 서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일천의 안해 유태정과 자식들이 미국에서 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조국에 와서 아들들을 만나보도록 불러주시였던것이다.

그의 손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1, 2권이 들려져있었다.

비행장에서 북에 사는 아들들을 만난 유태정은 수령님의 회고록을 내보이며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지금껏 너희 아버지를 잊지 않고계실줄은… 이걸 보구 내 죽기 전에 조국에 가서 위대하신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라도 올려야겠기에 떠나왔구나.》라고 하면서 흐느껴울었다.

그날 최일천에게 수여된 조국통일상 상장을 받아안은 가족들은 곧 애국렬사릉으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일천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것은 그의 투쟁공로로 보나 조국에 있는 아들들을 보아서도 해주어

야 할 일이라고 하시며 이날 행사를 조직해주시였던것이다.

애국렬사릉에 이르니 《반일애국렬사 최일천동지》라고 씌여있는 묘비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화환과 제상이 놓여있었다.

다음날 최일천의 가족들을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한품에 꽉 안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최동주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시더니 곁에 두고도 늦게야 찾았다고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유태정은 《지금까지 남편의 령혼이 떠돌아다녔는데 이번에 애국렬사릉에 안장시켜주시니 너무도 감사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최일천이 깐지고 사업에서 책임감이 높았다고 하시고는 최일천의 뼈는 없어도 비석을 세우는것이 나쁘지 않소, 시신이 없는 사람이야 많지라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나라의 독립과 통일애국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영웅들이 시신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이의 곁을 떠나갔던가.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전사를 잊지 못해하시는 그이의 고결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최일천의 가족들은 한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식사까지 마련해주

시고 친히 음식들을 권하시였다. 그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나의 혁명생활중에서 가장 중요한 페지가 오가자생활이요, 오가자생활은 회고할것도 많소, 그중 최일천이와 관계되는것도 많소, 최일천이는 가만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글쓰기를 좋아했소, 그는 자기 가시아버지 변대우를 돌려세우는데서 역할을 많이 하였소라고 하시며 오가자시절을 방불하게 회억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일천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자주 만나자고, 아버지를 찾아오는것처럼 아무때나 찾아오라고 은정넘친 말씀을 해주시였다.

최일천을 잊지 못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수록된 항일혁명투쟁자료와 함께 그 필자인 최일천을 출판물에 널리 소개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의 자식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이리하여 민족주의자로서 반일애국의 길에 나섰던 최일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인생의 새 출발을 할수 있었던 최일천은 절세의 위인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되였다.

하늘에 태양이 영원하듯이 민족의 태양의 은혜로운 품에 안긴 인생도 영원한것임을 최일천의 한생은 말해주고있다.

안신호편

그리스도교신자가 녀맹일군으로 ························· 196
통일정부수립에 이바지하던 나날에 ···················· 207
영생의 언덕에 올라 ··· 215

경력

- 1884년 11월 10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
- 1898년 서울 정신녀학교 입학, 졸업후 반일애국계몽사업에 참가.
- 1945년말 남포시녀맹위원장.
- 1947년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 중앙녀맹부위원장.
-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법제위원.
- 1964년 2월 사망.
- 1990년 조국통일상 수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안신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독립인사로서의 안창호의 파란많은 일생을 생각했고 생전에 그가 민족을 위해 바친 로고를 더듬어보며 감개무량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잊지 못하시고 회고록에서 회고하신 안신호녀성, 그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반일애국인사 안창호의 누이동생이다.

하기에 안신호라고 하면 그의 오빠인 도산 안창호부터 생각하게 된다.

그만큼 안신호는 오빠인 안창호라는 후광이 있어 더욱 존재감이 두드러졌던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인척관계나 후광만으로 값있고 빛나는 것이 아니다. 하다면 무엇이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그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하였고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생하게 하였던가.

그리스도교신자가 녀맹일군으로

1945년 9월 어느날 남포시에 내려가 사업하고있던 파견원의 방으로 성경책을 손에 든 그리스도교신자인 한 녀성이 찾아왔다. 자기를 도산 안창호의 녀동생 안신호라고 소개한 녀성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안부를 정중히 물으며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수령님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원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시여 각지에 항일혁명투사들을 파견하시면서 도산 안창호의 녀동생인 안신호를 찾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제발로 찾아왔으니 그 일군은 반가움을 금할수 없었다.

안신호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의 나이가 지금 얼마이며 누구와 같이 살고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일군의 보고는 위대한 수령님께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창호와 안신호에 대해 깊이 알게 되신것은 1927년 2월이였다. 당시 조선사람들이 많이 모인 길림으로 가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시며 청년운

동을 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의 거물로 알려진 상해림시정부의 초대국무총리서리였던 안창호가 길림에 찾아와 시국대강연을 한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길림의 교포들은 《거국가》를 부르며 안창호를 국가수반 못지 않게 성대히 영접하였다. 《거국가》란 안창호가 외국으로 망명할 때 조국을 하직하면서 지은 노래이다.

조선사람들은 《거국가》를 사랑하듯이 이 노래의 창작가인 안창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숭배하였다. 안창호의 인품과 실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통령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길림의 교포들로부터 성대한 영접을 받은 안창호는 강연에 출연해달라는 청년학생들과 독립운동자들의 요청을 받고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시국대강연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강연회에 참가하시였다.

그의 류창한 웅변은 시작부터 청중을 그러쥐였다. 안창호가 동서고금의 력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어가며 조선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을 펼칠 때마다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져오르군 하였다.

안창호의 강연을 쥐여짜면 《민족인격완성론》과 리상향론이였다. 우리 나라가 뒤떨어진 나라로서 식민지가 된것은 인

격과 수양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것만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화목해지도록 각자가 자기 인격을 높여야 한다는것이 그가 강연에서 모를 세워 주장한 《자아인격혁신론》이였다.

그는 조선민족을 세계에서 정신적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사람들만큼 때벗이를 해야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안창호의 이런 개량주의주장에 공감하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끝에 눈굽을 찍었다. 이러나저러나 그의 강연은 한마디한마디가 다 애국정신으로 관통된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안창호의 발언에서 인민 특히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욕을 거세할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 참지 못하시고 안창호에게 세가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이대시였다.

그러자 사태는 예상외로 번져졌다. 그처럼 도도한 기상을 가지고 장내를 쥐락펴락하던 안창호의 연설이 쪽지편지를 받은 다음부터 그만 김이 빠져버리였다. 안창호는 좀전까지 일사천리로 펴나가던 강연을 성급하게 마무리짓고 연탁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실망한 청중은 도산선생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주접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차며 출입문쪽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수백명의 중국경찰들이 불시에 강연장에 달려들어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 대검거사건을 조종한것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구니도모란자였다. 이리하여 연사인 안창호는 물론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붙잡혀 길림독군서에 구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반동군벌들이 안창호를 포함하여 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붙잡아간데 대해서 격분을 누를길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즉시에 《ㅌ.ㄷ》성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붙잡힌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ㅌ.ㄷ》성원들과 선진적인 학생청년들이 안창호의 석방운동에 발벗고나서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를 한다는 사람들과 지어는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는 청년학생들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안창호리론에 대하여 서면질문까지 들이댄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리 극성이냐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몰리해하고있는 그들을 설복하던 일을 더듬으시며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것이지 안창호란 인간자체를 반대하는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

선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였다. 나는 그때 수난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웠다.

내가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한것은 그들이 사대주의적이고 민족허무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립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광복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주기를 바랐기때문이였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한것은 그들을 타도하자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벌써 10대의 그 시절에 민족단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인적풍모를 완벽하게 겸비하고계시였다.

안창호석방을 위한 군중집회가 있은 다음 길림시가지의 담벽과 전주대들에는 중국관헌은 일제의 간계에 속지 말고 감옥에 가둔 조선동포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는 내용의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직지도밑에 《ㅌ.ㄷ》성원들은 중국의 여러 신문사들에 사회여론을 환기시키는 글도 써보내고 시내 청소년학생들과 군중들은 매일같이 독군서에 몰려가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투쟁과 시위를 벌렸다.

날로 더해만 가는 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반동군벌들은 20여일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전원을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만약 제때에 안창호를 석방시키지 못했다면 그는 일제경찰의 손에 넘어가 조선으로 압송되여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무서운 옥고를 치르었을것이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립운동자인 안창호뿐아니라 그의 녀동생인 안신호에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1884년 11월 10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도룡섬에서 농민의 딸로 출생한 안신호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오빠 안창호를 부모처럼 여기며 성장하였다.

안신호는 열네살때에 오빠인 안창호를 따라서 서울에 올라가 정신녀학교에 입학하여 신식교육을 받았다. 정신녀학교 재학시절에 성적이 우수하고 성격이 활발하여 모든 면에서 오빠인 안창호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안신호는 서울에서 정신녀학교를 졸업한 다음 오빠 안창호와 함께 반일운동에 나섰다. 그러다가 오빠가 일제경찰에 의해 체포되여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였다가 세상을 떠나고 반일투쟁에 나섰던 둘째아들이 일제에 의해 학살되자 《하느님》께 일본이라는 악을 징벌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가 되였다.

예수를 믿고 《하느님》에게 빈다고 수난당하는 민족의 처지가 달라질수 없고 독립이 성취되는것은 아니였지만 연약한 녀인의 몸으로 마음속으로나마 국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바

란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특한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교인들을 대하실 때면 언제나 그와 같은 애국적인 종교인들을 생각하시며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깊은 관심을 돌리군 하시였다. 하기에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시자 곧 우리 나라 반일애국운동에서 큰 자취를 남기고 왜놈들에게 희생된 안창호의 동생 안신호를 찾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안신호를 만났던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안신호가 안창호의 누이동생, 그리스도교신자로서 민족주의자들과 그리스도교인들 그리고 녀성들속에서 일정하게 이름이 있고 활동성이 있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를 잘 키워야 하겠다고, 안신호에게 우리의 건국로선을 잘 해설해주어 그가 남포시내 그리스도교인들과 녀성들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데 앞장서게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녀성을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돌리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모로 미숙한 그에게, 그것도 그리스도교신자에게 남포시녀맹위원장의 책임을 맡겨주시였는데 이것은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 당의 건국로선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고 정치적으로 미숙한 그를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 제1차확대위원회를 비롯한 주요회의에 참가시켜 정치적안목을 넓히고 사업방법을 터득하게 하시였다.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남포시녀맹위원장인 안신호도 이날의 력사적인 회의에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그를 몸가까이 불러 만나주시였다.

그이의 환하신 존안을 뵙는 순간 안신호는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자기 가정의 최대의 소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며 큰절을 올리였다.

지난날 안창호오빠가 드리지 못한 인사까지도 합쳐 백번천번 큰절을 드리고싶은것이 당시의 그의 심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갑다고 하시며 그간 건강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자리를 권하시고 남포시녀맹위원장이 건국사업에 힘쓰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리스도교신자라고 하여 나무라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순간에 정화시켜주시는 말씀이

였다.

너무도 소탈하고 다심하신 그이의 말씀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안신호는 어려움을 잊고 장군님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애로되는것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안신호는 모르는것이 많아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모르는것이야 배우면서 하면 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화제를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회의에 참가하니 소감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많은 애국자들이 피를 흘렸고 눈을 감지 못한채 타향에 묻혔는데 드디여 우리 인민정권이 섰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섰습니다.》

아마 그 시각에 안신호는 나라의 독립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며 심신을 불태우던 오빠와 반일애국의 길에서 희생된 둘째아들 생각에 더더욱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것이다.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털어놓은 안신호는 평범한 종교인인 자신을 국사를 론하는 회의에 참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상기업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민의 참다운 민주주의정권이기때문에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회의에 응당 애국적인 종교인도 참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남포시녀맹위원장이야 일본놈들에게 오빠인 안창호선생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으며 지금은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있지 않는가고 하시며 안창호선생은 나라의 독립을 념원하여 활동한 반일애국자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과시 하늘같은 도량과 인덕을 지니신 위대한분이시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심장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해방전 나라의 해방을 위해 크게 해놓은 일도 없는 오빠를 반일애국인사로 내세워주시는 그 하늘같은 믿음에 목이 메였고 그리스도교신자가 된 자기를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는 회의에까지 참가시켜주신 그 은정이 고마워 눈굽을 적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나라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자유도 있다고 하시며 종교인들도 모두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그의 가정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어느 한 시인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한 젊어지고 실망과

더불어 늙고 사라진다고 하였다.

해방과 함께 북조선에 펼쳐진 현실은 안신호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의 활력을 안겨주었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남포에 내려간 안신호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단아한 조선치마저고리차림으로 종교인들과 녀성들을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워졌으며 왕년의 우아한 기품이 되살아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춘의 활력을 되찾고 새 조국건설에 헌신하는 그를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립되였을 때에는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인차 중앙녀맹부위원장의 책임적인 사업도 맡겨주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한 그리스도교신자의 인생전환은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하기에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정치라고 탄복하면서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장군님의 치하에서 이루어질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던것이다.

참으로 안신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한 독립인사에 대한 뜨거운 경의와 련결되여있었으며 그의 누이동생을 옳은 길로 이끌어 삶을 빛내여주시려는 숭고한 의리심과 잇닿아있었다.

통일정부수립에 이바지하던 나날에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그때 북으로 쏠리는 민심을 타고 완고한 민족주의자이며 남조선의 우익정객의 거두의 한사람인 김구도 평양으로 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으로 찾아오는 김구와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 이 중요한 사업을 앞에 놓고 제일먼저 생각하신것은 안신호였다.

그런데 김구가 평양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신호가 김구와의 상면을 거절해나섰다. 그는 김구를 잊지 못하면서도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극악한 숭미반공분자로 타매하면서 김구가 평양에 와도 만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의 반공행적으로 하여 당시 김구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당시 안신호만큼 김구와의 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없었는데 본인이 김구를 만나지 않겠다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였다.

련석회의날자가 가까와오던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녀성을 집무실에서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김구선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구선생을 잘 대해주고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김구선생과의 사업을 선생에게 맡기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그 괴벽스러운 민족주의자가 평양에 온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와의 사업을 자기한테 맡겨주시는 크나큰 신임에 그는 더욱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놀라와하는 그를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김구선생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구선생의 지난날에 대하여 문제시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뉘우치도록 잘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같은 민족의 정으로 따뜻이 대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생이 잘 이야기해주면 김구선생이 느끼는것이 많을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튿날 안신호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김구라는 사람이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다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올리는 안신호에게 그의 과거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안선생으로서는 그럴수 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 뭉치자고 하는것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인데 김구선생

이라고 왜 못 들어오겠는가, 장군님께서는 그의 과거보다도 애국의 길로 나아가려는 현재의 지향을 귀중히 여기시여 그와 손잡기로 하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진심으로 애국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에 대하여 과거를 묻지 않고 손잡고 나아가는것이 장군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견지해오신 일관한 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안선생은 이번 기회에 김구선생에게 우리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난날 김구가 알고있던 그런 공산주의자들과는 근본이 다른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이라는것을 잘 인식시켜야 한다고, 특히 북조선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옳은 정치를 베풀고계시기때문에 이룩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나는 안선생이 김구선생과의 사업을 잘하여 **김일성**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리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안신호는 눈앞이 환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짐을 마음속으로 느끼였다.

사실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완고한 김구라고 해도 북에 대해, **김일성**장군님의 정치에 대해 실감하게 될것이였다. 그리고 김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북의 현실을 본다면 그

에 공감하지 않을수가 없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해 자기가 얼마나 중한 임무를 걸머졌는가를 깨달은 안신호는 따뜻한 마음으로 김구를 만나리라 결심하였다.

4월 20일 평양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뛰여난 도량과 인품에 크게 감복한 김구였건만 고집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제는 누구보다 안신호를 만나보아야겠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아득히 흘러간 청춘시절 서로 사랑하면서도 감옥살이, 상해망명 등 운명의 곡절로 부부의 인연을 맺을수 없었던 안신호였다.

북에 와있는 며칠새에 **김일성**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이전에 자기가 알고있던 공산주의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였지만 《독립운동의 대선배》로 자신이 존경하던 안창호의 친누이동생으로서 자기와 각별한 사이였던 그리스도교신자 안신호가 어떤 생활을 하고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더우기 김구는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에 대하여 체험자의 고백을 통해 알고싶었던것이다.

김구의 요청에 의해 안신호는 그와 상봉하게 되였다.

후날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당시 평양에 와서 안신호

를 만났을 때에 받은 충격과 감동을 적은 김구의 수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내가 평양에 간것은 1948년 4월이였다.

먼저 무조건 기쁜것은 옛날 련인을 만난것이였다.

그 녀자가 얼굴에 주름살을 띄운 로파가 되여 내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의 흉중은 감개무량이라는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었다.

크리스챤의 가계로서 혹시 박해를 받지 않았는가 걱정하였는데 그런것은 전혀 없었다.

크리스챤인 그 녀자는 그때 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있었다.》

그때 당시 김구의 기존관념에 수면을 튕기며 날아가는 팔매돌과도 같은 충격파를 일으킨것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련인을 만났다는 애틋한 기쁨과 흥분에 앞서 우익민족주의자의 누이동생이며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안신호가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 북에서 녀성동맹의 간부로 성장한 뜻밖의 사실과 정신적으로 놀랍게 변모된 그의 인간상이였던것이다.

《그래 신호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내오?》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으로 온 집안이 다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남포시녀맹위원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녀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지니고 일하고있어요. 자식들은 대학에도 다니구… 생활에 아무 불편과 걱정을 모르

고 잘 지내고있습니다.》

《그게 다 참말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저희가 남포에 살고있을 때도 친히 저를 여러차례 만나주셨고 오늘도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념려하여주신답니다.

그이께서는 안창호선생을 잘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오빠도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분인데 동생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과분한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아이들은 다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무료로 공부하고있어요.》

《신호, 여기 이북에서는 종교를 마음대로 믿게 하오?》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는것은 사람들의 자유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늘을 믿어도 미국의 하늘을 믿는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늘을 믿지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런 신앙은 나쁜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김구는 저으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암,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야. <하느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 …》

머리를 연신 끄덕이는 김구의 가슴속에서는 안신호를 비롯한 북의 인민들이 높이 우러러받드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조선의 구세주이시라는 생각이 번개쳤을것이다.

그날 김구는 자기는 이젠 70고령의 늙은 몸으로 젊은 사

람들처럼 이북의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다니며 알아보기도 그렇고 또 공장이나 한두개 보고는 이북의 참현실을 다 알수 없으니 여기 실정에 밝은 신호가 이북의 정치에 대해 솔직하게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안신호는 김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일성**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지금까지의 기존개념으로는 잴수 없는 제일 좋은 정치리념이라고 봅니다. 장군님의 공산주의를 다는 알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의 민족성원모두를 바른길로 이끌어 애국자로 키우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선양하며 온 국민이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빠는 애국애족이요, 독립운동이요 하면서 덮어놓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였고 우리 민족을 무력한 존재로 깔보면서 대국만을 숭배했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북현실을 보았더라면 오빠도 가슴을 치면서 눈먼 과거를 뉘우치고 독립운동을 다시 해야겠다고 일어섰을거예요.》

안신호는 김구와 그의 측근들인 조완구, 엄항섭, 안우생등을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안창호의 고향집, 자기가 태여나고 자란 고향집으로 안내하였다.

한평생 공산주의에 역행한 우익민족주의자의 누이동생, 독실한 신자가 **김일성**장군님의 믿음에 의해 녀성동맹의 지도간부로, 북조선최고립법기관의 대의원으로 있다는 사실앞에서

북의 공산주의에 대한 김구의 의혹의 뿌리는 밑뿌리채 흔들리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는 남북련석회의때 북반부에 들어와 안신호를 만나보고 놀랐다. 공산주의자들이 상해림시정부 거물의 누이동생을 중앙녀맹부위원장으로 등용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안신호는 그의 젊은 시절의 애인이며 약혼녀였다.》

4월말 안신호녀성을 다시 만나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구와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치하하신데 대하여 알려주시며 무척 기뻐하시였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한것을 두고 그토록 만족해하시는 김정숙녀사를 우러르며 안신호는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와 김정숙녀사께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자기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려 마음써오신 나날들이 되새겨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이렇듯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그 광휘로운 빛발과 한량없는 은정을 받아안았기에 안신호녀성은 새 조선의 어엿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민족의 대단합실현에 이바지하는 책임적인 사업도 감당할수 있었던것이다.

영생의 언덕에 올라

안신호녀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는 한 종교인을 일시적인 길동무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그의 한생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려는 숭고한 의리에 기초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날로 더욱 깊어지는 믿음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될 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안신호녀성은 북과 남의 각지에서 선발되여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한자리에 앉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는 력사적인 사변의 체험자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신 그 회의에서 안신호녀성이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으며 회의휴식시간에는 그를 만나주시고 나이많은 어머니가 대의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게 되였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는 물론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날의 휴식기회가 있을 때면 안신호녀성을 자주 만나주시고 어머니에게는 제강이 필요없다고, 어머니가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고 하시면서 거듭되는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한번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되는 연회에 참가하여 오랜 신앙생활의 습관에 따라 눈을 감고있은적이 있었다. 옆자리에 앉았던 한 일군이 이 광경을 보고 《식사할 생각은 안하고 졸기는 왜 좁니까. 해방도 되였는데 이젠 그만 졸지요.》라고 롱말을 하여 좌중을 웃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의 심중을 헤아려주시며 우리나라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거야 좋은 일이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여 무안해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녀성을 여러 외국손님들과의 담화에 참가시켜주시였으며 그들과 동행하는 사업도 맡아하게 하시여 그가 생의 말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업에 의의있는 기여를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준엄한 시기에도 안신호녀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동차를 보내시여 안전한 지대에 대피하여 생활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그

의 가정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있던 1952년 5월 어느날이였다.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가 오늘까지 우리를 믿고 따라왔으며 일을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남북련석회의때에 어려운 일을 맡아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신문에 글도 내고 방송에도 출연시키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을 받아안고 안신호녀성은 어려운 전쟁환경속에서도 날로 더욱 두터워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그는 어느날 고급중학교 교장으로 사업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나라없는 지난날부터 우리 식구들의 신상에 닥쳐온 불행을 막아주시고 영광만을 안겨주신 잊을수 없는 은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돌려주시지 않았다면 너의 외삼촌이 어떻게 독립인사로 이름을 남길수 있었고 우리 온 식구의 오늘이 어떻게 있을수 있었겠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

비록 몸은 년로하였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그는 1964년 2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민족의 어버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한생을 빛내인 안신호녀성을 잊지 않고계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1986년에 예술영화 《위대한 품》의 창작을 지도하시면서 그를 잘 형상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영화가 완성된 후 이 영화를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그를 이끌어주시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안신호, 그 어머니가 내 일을 많이 도와주었지라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1986년 7월에 건립된 애국렬사릉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서 인생을 값있게 마무리한 수많은 애국인사들의 유해가 정히 안치되여있다. 바로 이 성스러운 곳에 안신호녀성도 안치되여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렬사릉이 건립되였을 때 그의 유해를 이곳에 안치하게 하시였으며 조국통일상이 제정되였을 때에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심으로써 그의 생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도록 해주시였다.

통일애국인사들이 안긴 품, 그 품은 애국에 살고 애족에 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안겨야 할 위대하고 한없이

넓은 품임을 안신호의 한생은 말해주고있다.

통일애국인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조국통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사람치고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다.

하다면 오늘날 조선사람으로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족적인 성업에 뛰여드는것이다.

영생의 언덕에서 통일애국인사들은 온 겨레에게, 후대들에게 이 애국의 참뜻에 대해 절절하게 당부하고있다.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6

저 자	김 강 혁, 라 성 철
장 정	채 대 성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9월 15일
발 행	주체110(2021)년 9월 18일

ㄱ−1507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42−5

삶이란 무엇인가.

외세에 의해 두동강난 강토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성원들의 삶, 애국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 통일에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운명이고 삶이다.

통일에 뜻을 두고 통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치는 그러한 삶이 조국이 알고 민족이 기억하는 참다운 삶, 애국의 삶인것이다.

ISBN 978-9946-31-142-5